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생명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충만한 한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5-17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1월 13일 (토) 제 1665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2018년, 교회생존 가능 하는 결정적 순간”

## CT, “복음 중심으로 재보정해야 한다” 제언

트럼프 시대에 '복음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미 언론에 공통적으로 쟁점이 될 정도로, 미국 교회는 현재 비상이다. 이미 주류교단의 성장이 마이너스로 접어든 상황에서, 그나마 성장을 유지하는 남침례교단까지 마이너스 성장에 동참했고, 2016년에는 '백인 크리스천 아메리카는 죽어간다(White Christian America is dying)'는 여론 조사와 연구 서적들이 출판됐다. 그래도 미국에서 복음주의자들은 신앙의 명맥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트럼프 시대 즉 대선후보 선거유세부터 백악관 입성 그리고 현재 임기까지 거의 80% 정도의 백인 복음주의자들(반영복음 리더들 중심으로) 도덕이나 인격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앙적 특징을 상징하는 복음주의자들이란 개념은 어느새 불신자들이나 세속주의자들에게 “정치적 선택도”를 지칭하는 단어로 탈색되고 말았다.

여기에 허리우드 거대 영화 제작자의 잇따른 성 스캔들 이후, 엘라바마 상원 후보로 나선 로이 무어 역시 성 추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와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후원을 받고 당선을 따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결과는 공화당의 텃밭에서 민주당 후보가 역전승을 거뒀다.

하지만 엘라바마 보궐 선거는 비단 공화당과 백인 복음주의자들만의 패배가 아니었다. 밀레니엄 세대로 대변되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주의적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졌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교회를 망쳤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따라서 2018년은 미국교회에게 있어 교회 성장을 넘어 생존을 가능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이, 크리스천리티투데이(CT)의 예측이다. 다시 말해서, 최근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내용(Liberal churches are dying. But conservative churches are thriving:A Canadian study found that conservative churches are still growing, while less orthodox congregations dwindle away)처럼,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가르침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복음으로 교회를 재조정/보정(Recalibrate)해서 나아가야만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Recalibrate: 10 Steps Every Church Must Take This Year, Or Be Dead In A Decade: Everything but Jesus and the Bible must be on the table).

### ‘성경’ 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Recalibrate!

이러한 상황에서 CT는 교회 생존을 결정짓는 개념으로 “재조정/보정(Recalibrate)”을 도입한다. 무엇보다 교회 생존과 성장을 가능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것이다(www.recalibratechurch.org 에 가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볼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으로 현재의 교회를 진단하고 앞으로 전진해나가라고 말해준다.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들은 총체적인 마이너스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처럼 급변하는 세상에 복음으로 무장된 방법들과 프로그램으로 후퇴하지 말고 나아가갈 때,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시행한 오래된 방법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다

지만, 성경적 본질들이 희석되거나 타협된 교회들은 죽어가고 있다. 따라서 성경적 원리들과 등진 교회들은 생존하기 힘들다. 교회의 태생적 본질인 성경과 멀어지면 질수록 더욱 그렇게 된다. 세상에서 변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1. 성경적 본질들을 재확인한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처럼, 성경적 핵심 가르침들을 기반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들은 성장해나

2. 제자 훈련과 리더십 훈련을 강조해야 한다. 아직까지도 담임 목회자나 부교역자들에게 교회 전반을 맡아 사역

하라고 하는 교회는 생존하기 힘들다. 그 대신, 교회들은 에베소서 4장 11-12절 말씀(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처럼, 평신도들을 일꾼으로 사역자로 구비시켜 교회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서, 목회자의 주 사역은 설교에서 보살핌과 양육 즉 평신도 리더들을 훈련시켜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과 양육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에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야만 한다.

3. 재정적 부담들을 줄여야 한다. 앞으로 헌금이나 기부는 줄어들고 그 때문에 심각한 곤란을 교회는 겪게 된다. 막대한 인건비, 교회 월 물게이지 상환금, 전기, 수도, 관리비 등등 교회 크기에 비해 쌓여만 가는 지출 비용에 교회는 휘청거리게 된다.

(3면으로 계속)

### 초대서

## “출동하는 911 미주크리스천신문”

청암 배성현 목사  
(두나미스코리아)



시도 때도 없이  
다급한 삶의 문제로 싸우는 목소리  
진리를 애타게 찾는 불타는 목소리  
영혼의 말기암 환자들의 떨리는 목소리들로  
하늘 나라 상황실은  
언제나 비상

오늘도 내일도  
걸려온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911

십자가 복음으로 전신갑주 입은 채  
만병 완쾌제 구약과 신약  
응급환자 소생케 하는 예수의 보혈  
성령의 산소호흡기 신고서  
분별의 사이 렌을 울리며  
기쁨으로 생명을 구하려고  
출동하는 예수님의 동역자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p>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p>	<p>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p>	<p>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p>
---------------------------------------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b>시론</b> 은희곤 목사	 <b>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b> 손상용 목사	 <b>리더십 코멘터리</b> 손동원 박사	 <b>신년메시지</b> 이호영 목사, 황의춘 목사	 <b>교회개혁 500주년을 지나며</b> 이윤석 목사
-------------------------	---------------------------------------	-------------------------------	------------------------------------	--------------------------------------

**한인신학교 최초 ATS 정회원 인준**

미연방정부 학비 지원 • 미국 정규대학 학사/석사/박사학위 • 한국어 강의  
미군독 장교지원 • 미국 주류 기독교대학(원) 편입학 • 온라인 수업 & 모바일 사용 • 유학생 I-20 발행

ABHE 기독교대학연합회 정회원(ABHE)  
ATS 신학대학원협의회 정회원(ATS)

미정부 재정지원 (Pell Grant)  
유학생 I-20 발행

미국 정규 학위를 취득 및  
배움의 기회 확대를 위한  
**대학(원) 진학 및  
편입학 제도**

대학과정 재학생의  
50% 이상 학비지원  
**연간 평균 \$5,800의  
정부 학자금 혜택**

세계 어디에서나  
미국 정규 학위를 취득하는  
**학문탐구 기반의  
온라인 수업**

다분야의 성서적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학과 및  
우수한 교수진**

월드미션대학교 2018년 **봄** 학기

# 신(편)입생모집

**원서접수마감** 2018년 1월 19일(금)

**입학문의** 1.213.388.1000  
admissions@wmu.edu

**World Mission University**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 지구종말시계, 현재 밤 11시57분30초

## 미핵과학자모임&에어업사이언스, '2018년 인류 최대 위협 순위와 대안 제시'

지진·화산폭발·허리케인·산불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터지는 정치 분쟁과 자연·인공의 위협 속에서 때때로 세계가 이미 무너지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래도 인류는 가끔씩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하지만 근근이 버텨나간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미국 핵과학자들과 유튜브의 과학채널 에어업사이언스(AsapSCIENCE)는 인류의 종말을 초래하는 큰 위협 요소 리

스트를 작성했다. 우리 스스로 일군 세상에 관한 슬픈 비평이다. 난데없는 소행성 충돌이나 슈퍼화산 폭발처럼 완전히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것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4대 위협은 모두 우리 자신이 초래한 것들이다(The 11 Greatest Threats To Humanity). 따라서 '지구종말시계(Doomsday Clock)'는 지난해보다 30초 앞당겨져, 밤 11시57분30초로 결정됐다.



지구종말시계는 현재 자정 즉 지구 종말의 날에 2.5분을 남겨두고 있다(VOA)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인류 존재에 위협이 되고 있다.

또 사이버 공격 등 신기술도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러시아가 지난해 사이버 해킹을 통해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은 선출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해 민주주의를 손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핵과학자회보”는 인류에 대한 위협을 낮추기 위한 7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북핵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관련국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낮추기

## 인구 과잉 감소 모두 문제...기후변화, 핵, 인공지능도 종말 재촉 북핵, 민주주의 불신, 사이버 공격 등 신기술도 인류 위협

가 더 강력해지면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방화의 해방이 화산폭발을 촉발할 수 있으며, 기온상승이 해양생태계를 위협해 동물을 멸종시키고, 가뭄을 유발해 식물을 죽이고, 인간들 사이에 치명적인 전염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재해는 물 부족과 이상기후로 인한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국가들 사이에 더 많은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다. 소규모 핵전쟁이라도 핵겨울을 초래해 지구를 냉각시키고 오존층을 파괴하면서 궁극적으로 10년 이상 지속되는 가뭄이 찾아올 수 있다.

인공지능: 현재 모든 과학자가 최대 위협으로 꼽는 것은 인공지능(AI)이다. 산업·농업 혁명과 견줄 만한 수준으로 계속 성장한다면 2075년에는 자율로봇이 인간에 근접한 지능을 갖추게 된다. 이 기계들이 인간에게 악의를 갖지 않더라도 킬러 로봇이 악당의 손에 들어가거나 좋은 의도로 프로그램 된 AI가 파괴적인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미국 핵과학자(Bulletin of Atomic Scientists)들 역시 인류가 멸망에 더 가까워졌다고 진단한다. 한마

다. 2017년보다 지구종말시계가 30초 앞당겨졌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현대화, 북한의 핵실험, 기후변화,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등이 주요 위협으로 지적됐다.

북한은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을 했고, 평균적으로 매달 두 차례 계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리고 핵 문제 외에 각국이

위해 북한과 심각하게 대화하라고 촉구한다. 그러면서 지금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종말시계는 미국의 핵 개발에 처음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설립한 핵과학자회보가 1947년부터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이 시계는 자정 7분 전에서 시작해 지난 70년 간 22차례 조정됐다.



## 시론

### 감사도 순종이더라!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일본에 시키지도 않은 엉뚱한 메뉴가 나오는 식당이 있습니다. 라면을 시켰는데 우동이 나왔습니다. 햄버거를 시켰는데 만두가 나왔습니다. 종업원들이 이렇게 주문을 잘못 넣으면 어떻게 하나? 과연 이 식당이 제대로 될까? 등등의 생각이 듭니다. 현대 놀라운 것은 엉뚱한 음식을 가져다줘도 화내는 손님도 한명 없고,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주는 대로 감사히 먹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상한 식당은 인기 있는 맛집입니다. 이 식당을 찾는 고객들은 바로 여기서만 '특별한 이해와 배려가 넘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식당이 특별한 이유는 다름 아닌 '아라비이트생들' 때문입니다. 이곳의 아라비이트생들은 모두 '치매에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이분들은 최선을 다해 웃음을 잃지 않고 일하려고 노력하십니다. 주문을 받아 가지만 음식을 가져다줄 때 누가 주문했는지도 헷갈리고 그래서 주문과는 전혀 다른 음식을 가져다줍니다. 많은 자원 봉사자와 더불어 운영되고 있는 이 식당은 치매 환자들에게 "이젠 내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채 나만 혼자 남았다"는 고독감과 상실감을 극복하고, 비록 당신이 치매일지라도 아직도 사회구성원의 일부라는 소속감을 주며,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불어 넣어주고, 식당을 찾는 고객들에게도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되는 식당이 성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대박난 식당의 성공 비결은 바로 "이해와 배려"입니다.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주문한 음식이 안 나오고 다른 음식이 나와도, 가끔씩 물을 쏟아 버지나 치마가 적셔도 화를 내거나 얼굴을 찡그리지 않습니다. 조금 실수하고, 조금 느리고, 조금 서툴어도 관용합니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할머니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린 시절, 우리들의 모든 실수를 보듬고 길러주신 우리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이 할아버지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들이 공부하고 자랄 수 있도록 몸 버려, 마음 상해 일하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떠온 글).

참 마음이 쫄쫄 다가온 장면이라 이 이야기로 새해 첫 장을 엽니다. "사람이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눈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거니와 오직 마음뿐이다"(마크 트웨인). "이해와 배려"로 부모를,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목사와 성도들, 지인과 이웃들을 헤아리는 마음, 바로 그곳에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지 않을까요?

작년 송년주일과 송구영신의 주제는 "Stop & Check"였습니다. 지난 한해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할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달려가기에만 바빴습니다. 주위를 둘러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살기에도 벅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길을 가는 건지 문득문득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시간에 끌려가 흘러간 한해였던 거 같아 마음 한편이 먹먹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도 뭐 그리 크게 달라질게 있을 리고, 지난해처럼 또 그렇게 한해를 보내겠지 라는 마음들이 주는 무기력감과 패배감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가장 비참한 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며 땀 뻘뻘 흘리며 수고하며 일했는데 모는 게 허사롭다(시127:2). 진전이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만 할 때, 여기서 우리는 잠시 "STOP" 멈춰 서서 "Check" 점검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와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와 부모님과 남편과 부인과 자녀들과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와 친구들과 지인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 스스로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족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2:5). 모든 관계들 안에서 그 넘어진 자리가 바로 내가 다시 일어셔야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헤아릴 수 있는 '이해와 배려', 남편과 부인과 부모와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해와 배려', 목사와 성도들과 지인과 친구들과 이웃들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헤아릴 수 있는 '이해와 배려', 바로 거기에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는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워나가는 동역자로서의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과 교회와 남들에게 바라는 바로 그 배려, 그 이해를 내가 먼저 마음 열어 하면 어떨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7:12). 방향만 분명하다면 그리고 관계만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해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 '이해와 배려'로 다시 한번의 도약을 준비 안에서 꿈꿉니다. Happy New Year.

pastor.eun@gmail.com

<p><b>미주크리스천신문</b> The Korean Christian Press</p> <p><b>· L.A. Office</b>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p>	<p><b>■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b> <b>■ 편집국장: 유원정</b></p> <p><b>· N.Y. Office</b>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press@gmail.com</p>
<p>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p>	

#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현수막 | 천막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프로모션 상품

디자인서비스

플래그

롤업배너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현수막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 새해 결단, 의지 아닌 '사회적 감정' 으로 실행하라!

## NYT, 노스이스턴대 디스테노 교수가 말하는 새해 다짐 지켜나갈 지혜 보도

한 해의 끝은 계획을 세우기 좋은 시기이다. 우리는 모두 새해가 밝으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저축도 많이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술도 줄이는 새로운 내가 되자는 결심을 한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다시피 다짐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다. 인간은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이 형편없는 동물이며, 바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더욱 그렇다는 사실을 많은 연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1월 8일쯤이 되면 새해 다짐의 25%는

이미 버려지고, 연말까지 실천에 이르는 다짐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스이스턴대학 심리학과 데이비드 디스테노(David DeSteno) 교수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새해 다짐이 작성일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준다(The Only Way to Keep Your Resolutions).



불행히도 이러한 새해 다짐의 문제는 곧 인생의 문제다. 인간은 눈앞의 것 이상을 보지 못하고, 현재의 쾌락을 미래의 만족보다 앞에 두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그런 행태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에 대해 대부분 독자가 들어 보셨을 것이다. 단것을 당장 먹지 않고 15분을 기다려서 하나를 더 얻어내는 아이들, 즉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아이들이 나중에 학업, 직업적으로 높은 성과를 낸다는 내용의 실험이다. 이후 마시멜로 실험은 재정, 건강, 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다. 장기 목표를 바라보며 유혹을 참아낼 줄 아는 사람이 그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 도덕적 면모의 기초는 자기 절제...

### 감사하는 마음, 온정, 자부심 등이 실천에 옮기게 해

적인 쾌락에 대한 욕망을 억압해버린다.

나는 우리에게 더 나은 도구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이를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그 도구는 바로 '사회적 감정'(social emotion)이다. 감사하는 마음, 온정과 같이 사회적인 삶의 긍정적인 면을 뒷받침하는 감정들이다.

나는 수년간 이러한 감정이 의사 결정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왔다. 그리고 이성이나 의지력과 달리 이런 감정은 자연스레 우리를 더 인내하고 절제하도록 이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감정을 경험할 때, 자기 절제는 더 이상

힘겨운 전투가 아니다. 절제가 현재의 욕망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소중히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의지력이 자연스레 발휘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성공이란 시험공부를 하고, 노후 대비 저축을 하고, 헬스장에 가고, 마시멜로를 먹지 않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었다. 인간이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 목표를 세우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인류사 대부분에서 성공은 강력한 사회적 유대, 즉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협력하게 만들며, 지금 내가 희

생하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관계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런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자 사람들은 공정하고, 정직하고, 관대하며,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도덕적 면모의 기초가 되는 것은 나의 즉각적인 욕망과 이해 외의 것을 앞에 두는 능력, 즉 자기 절제다. 내 몫을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시간과 돈, 어깨를 내어주는 것은 모두 그 순간의 희생을 요구한다. 대신 그렇게 맺어진 관계로 인해 미래에 이득을 얻게 된다.

하지만 그런 "희생"을 감수할 때 사람들이 냉정하고 이성적인 손익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계산하지는 않는다. 응당 그래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뿐이다. 감사하는 마음, 온정, (자만과는 다른) 자부심과 같은 감정이 우리가 자기 절제를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다.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들여 선물을 만들거나,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서, 또

는 팀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지나치게 열심히 일해 본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 누군가를 도와준 적도 있을 것이다.

2018년의 시작과 함께 이러한 감정들에 더 집중해보는 것은 어떨까? 내 인생에서 감사하게 여길 것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에서 세상을 바라보기를 희망한다. 목표 달성을 향하는 길에서 작은 성취를 이룰 때마다 스스로 아낌없이 칭찬해주기도 바란다. 그렇게 산다면 앞으로 다가올 모든 12월 31일에는 후회할 일보다 기뻐할 일이 더 많을 것이다!

#### (1면에서 계속)

따라서 가능한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교회 운영 전반에 걸친 비용들을 줄여나가야 한다.

#### 4. 교회나 교회 부속 건물들 활용을 모색한다.

최근까지 만약 누군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가장 우선으로 하는 일은 바로 오피스나 스토어, 창고를 빌리거나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버처럼 "공유 비즈니스" 공간을 찾아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대안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사무실이나 비즈니스 공간에 따르는 비용 부담이라는 짐을 덜어내려고 한다. 교회들도 마찬

가지다.

따라서 만약 교회 건물이 없다면 새로 짓거나 구입하려고 서둘러 말고 가능한 한 현재 장소에서 버텨야 한다. 만약 교회 건물이 있다면 교회당이나 부속 건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

#### 5. 전략적 목회 파트너들과 같이 일한다.

미 전역에서, 많은 소형 교회들은 교단을 떠나 서로 목회적 원리들을 나누고, 상처들은 치유하면서 전략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선교단체들이 소형교회 차원에서 불가능한 영역들, 행정이나 지역사회 정보나 자원봉사

자 교육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교회 주변에 있는 이러한 교회나 지원 단체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

#### 6. 지역사회에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교회들은 반드시 지역사회에서 바라고 있는 것들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사회 불신자들에게 마땅한 사역이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은 지역인가 아니면 싱글 맘들이 많은 지역인가에 따라서, 사역과 교회 건물이 주중에도 활용되어질 수 있다.

#### 7. 전통(교단, 정치 등등)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와 성경이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

#### 8. 신자들만 만들지 말고, 제자들을 만들어라.

교인/신자들은 클럽을 만들지만, 제자들은 운동을 일으킨다. 교인/신자들은 전통을 따르지만, 제자들은 예수를 따른다. 교인/신자들은 마음이 변화되지만, 제자들은 삶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변화시킨다.

오늘 당장 이러한 원리들을 시작하라!

tdspark@gmail.com

## 채플린 임상목회 (12)

### 독감으로 몸살 앓는 거주



박동서 목사 (Dignity Health 병원 채플린)

100년 만에 찾아온 혹한의 한파로 고생하는 동북부나 중서부 주들과 달리 비교적 따뜻한 날씨로 여유를 부리던 캘리포니아는 지난 10월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독감 환자들로 인해 사상 최악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약국에는 독감 약이 떨어지고, 병원 응급실에는 빈 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사나 간호사들까지 독감(Influenza or Flu)에 걸려 병가를 낸 사람들이 많은데, 9월 말까지 사전에 독감 예방주사(Flu Shot)를 맞았음에도 올해 찾아온 독감에는 면역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의료보건의국도 마침내 시인을 했습니다.

지난 3달 간 65세 미만인 환자들 가운데 벌써 27명이 독감으로 사망을 했고, 남가주에서 북가주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모든 병원들과 약국들이 넘쳐나는 독감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한 채 독감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이미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 가족들은 환자병실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채플린을 비롯한 모든 의료진과 위생청결 서비스직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감기 기운이 조금만 있어도 담당 매니저가 병원근무를 중지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남가주 지역의 한국계 병원들도 한인 노인과 어린이들은 물론 독감증세를 호소하는 젊은 환자들로 온통 난리 중이라고 하니, 다른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환자들이 적은 시간이나,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료 후에는 손을 세정하는 일을 잊지 마시길 당부 드립니다.

65세 이상 되는 노인환자들은 독감에 감염된 후 곧바로 폐렴으로 발전하고 다른 합병증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중환자실이나 별도 격리된 병실로 보내지는데,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 환자들은 독감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하직하는 분들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의 경우 특히 더 위험한데 독감에 감염된 후에도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며칠씩 시간을 끌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회복이 힘든 경우가 많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개교회의 노인층들의 전도회나 구역, 목장들이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수시로 노인 교우나 혼자 사시는 교우들에게 전화나 심방을 해서 건강상태를 살피고,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는 빨리 병원으로 모시는 돌봄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할 경우로만 만족하시지 말고 진정으로 연로하신 분들의 필요에 따라 섬기는 사역이 진정한 긍휼사역이요 실버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임을 믿습니다. 무술년 신년에는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 미주크리스천 독자분들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 휴스턴새누리침례교회 담임목사청빙

Texas 주 Houston 한인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새누리침례교회는 1.5세대 복음의 비전을 품고 건강한 공동체를 가꾸어 갈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자 격**

1.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보수신앙을 가지신 분.
2. 남침례교단 소속
3. 정규 침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분. (M.Div 학위이상)
4. 목회경력 5년 이상 되시는 분.
5. 이중 언어 구사에 불편함이 없는 분.
6. 미국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1통 (초등학교 부터)
2. 자기소개서 (성장과정, 목회동기, 가족관계, 신앙관 등)
3. 학위증명서 (학부 및 대학원)
4. 목사안수 증명서
5. 최근 설교 CD 혹은 DVD 2회분.
6. 최근 촬영한 본인 및 가족사진 각 1매.
7. 본교회 목회 계획 및 비전에 대한 소견서.
8. 추천인. (2인)

**참고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한 분에 대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3. 이력서에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제출기한**

2018년 1월 31일. (당일 도착분에 한 함)

**새누리 교회**  
New Community Baptist Church  
713-722-0773 www.hnbc.org

본 교회는 7 acres(304,920 sq ft)의 부지 위에 54,000 sq ft에 달하는 4개의 건물 (Sanctuary, Gym, Education, Office building)로 구성되어 있고 Debt가 없는 완전 재정자립 교회이며 이 빈 공간을 채울 Vision 및 소명을 가진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 가인의 얼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구의 계절이 변화하는 중요한 원인은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을 하기 때문이다. 지구의 자전축은 지구의 북극과 남극을 연결한 축으로 23.5도 기울어져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는 이 뼈뼉한 경사각으로 인해 지구가 태양과 이루는 각도

가 달라져서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생기는 것이다. 과학자들의 설명은 지구의 기울기가 23.5도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거나 작다면 지구의 계절은 사람이 살수 없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정확하게 계산된 23.5도 기울어진 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계산된 것인가를 깨닫고 놀란다고 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과학시간에 배우는 지구본도 보면 동그런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뼈뼉하게 매달려 있는 것이다.  
어느 날 교육감이 어느 학교를 방문했는데 마침 이 지구본을 놓고 과학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의 눈에 띄었다. 교실을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물었다. "여기 반장! 여기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뼈뼉하게 기울어져있지?" 반장이 깜짝 놀라서 손을 저으면서 대답했다. "그거 저희가 안 그랬어요." 자기 잘못 아니라고 책임만 회피하는 대답을 하는 것이다. 여기가 없어진 교육감이 이번에는 그 선생에게 물었다. "김 선생, 이게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지 직접 대답해 보겠어요?" 하고 물었다니 선생님 대답하는 말이 "아! 그거 처음에 사올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더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지만 한

아주 타성적이고 무책임한 대답을 하는 것이다. 너무 기가 막혀서 화가 난 교육감이 그 지구본을 들고 교장선생님실로 갔다. "교장 선생님,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뼈뼉하죠?" 하고 물었다니 교장선생님 말씀이 "그거 모르십니까? 요즈음 중국산 다 그렇죠." 그러더라. 이런 참 기가 막힌 얘기이다. 학생이나 선생이나 교장이나 이렇게 타성에 젖었는데 이래 가지고 교육이 되겠는가? 이렇게 명칭하고 서야 무슨 일이 되겠는가?  
생각해보면 우리 사는 세상에 사건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건에 대한 자세, 그 마음가짐이다. 어떤 일을 당했느냐고 묻지 마라. 문제는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이다. 지능이다, 지식이다, 기술이다, 실력이다 무슨 얘기를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관심과 구체화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보시라! 실수와 실패는 같은 것이

아니다. 실수란 하나의 과정이요, 실패는 바로 결과이기 때문이다. 실패라는 것은 끝났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실수란 수없이 반복되면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과정으로써의 실패는 있지만 결론적인 실패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실패가 되느냐 실수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문제, 사안에 입하는 우리의 자세에 달린 것이다. 자연히, 또는 자동적으로 서야 무슨 일이 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다. 실패했다고 곧 실패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패는 사건이요, 실패자라는 것은 인성자체의 문제이다. 실패라고 하는 사건은 있으나 실패자는 될 수 없다. 실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알아야 한다. 실패하는 인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실패라고 하는 사건들을 통하여 더 건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바르게 더 생동력 넘

치는 그런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건과 생명이 지닌 역설적 관계이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이다. 저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보라! 이제 가인이 여기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서 어떤 태도로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좌우된다. 이 순간 그가 무엇을 생각했느냐는 것이다. 그에 따라서 그의 운명은 결정되는 것이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한다. 이 논리에 의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다고 하는 얘기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여기서 흔히 말하는 가인 콤플렉스가 나온다.

(10면으로 계속)

### 푸/른/초/장

**김근수 목사**  
(청신교회)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6:7-8).  
만홀이란 무심하고 소홀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무심하고 소홀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김을 받지 아니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무심하고 소홀하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니다. 한번쯤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한 것들 내가 보았노라"(전3:10).

상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한 날의 괴로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고생과 슬픔 속에 탄식하며 천국을 고대하게 하였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낮에는 햇빛, 밤에는 달빛으로 때마다 기쁨을 주십니다. 시간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림자를 통해 실체를 보게 합니다. 세상을 통해 영원한

함께 고통 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찌니라"(롬 8:18-22).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헬라말로 안트로포스(위를 보다)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위를 보게 되어 있었고 위를 보아야 위대해집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기 위해 기회가 있는 데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12).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13).  
자기 일에 즐거이 하는 것이 우리의 분복입니다(22).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시 49:12).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시 49:20).  
인생은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무엇을 심을 것입니까?  
virtue7117333@gmail.com

##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전도서 3장 1-15절)

달리는 열차는 정거장이 있고 역무원의 점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달리는 열차처럼 정거장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2017년을 보내고 새로운 2018년을 맞이하는 새해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습니다. 해 아래에는 새것이 없고 괴로운 일이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3장 1절)에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에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란 미리 한정하여 놓은 일정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기회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기회의 때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계는 멈출 수 있지만 시간은 오늘도 정확하게, 성실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 25세

부터 노화가 시작된다는 생물학적으로 보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냥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되 우리를 향하여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시간을 낭비하므로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패역함이 많은 기회를 잃어버림으로 만회할 수 없게 됨을 탄식합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대하36:16).  
어제의 결과는 오늘입니다. 오늘의 결과는 내일이 될 것입니다. 지

금 우리는 어제의 결과인 오늘에서 과거를 통한 점검, 다시 말하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란 뒤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를 받도록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 해야 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음이라"(전 3:17).  
우리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고생할 때 고생해야 하고 고민할 때 고민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비록 에덴동산에서 추방하여 저주아래 수고로이 일해야 하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한 능력을 알게 하셨습니다. 천하에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 천

세계를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란 기회를 주셨다는 면에서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영원한 세계의 기초석을 쌓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천국은 가봐야 한다고 하지만 신자는 여기서 천국을 준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신자는 영생의 말씀으로 삽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자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면에서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영원한 세계의 기초석을 쌓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천국은 가봐야 한다고 하지만 신자는 여기서 천국을 준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만 신자는 영생의 말씀으로 삽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자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성소수자 하나님’이라는 과목을 제공하는 Swarthmore 대학



지난달 12월 중순, 미에서 권위 있는 문과대학 중 하나인 스와츠모어(Swarthmore) 대학이 성경적 성별과 성의 원리원칙을 왜곡시키는 “성소수자 신학” 의제를 추진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기독교 성경을 띠고 있는 퀘이커교도에 의해 설립된 스와츠모어 대학은 사립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Queering God(성소수자 하나님)” 그리고 “Queering the Bible(성소수자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학교 종교과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하나님(Queering God)”이라는 수업내용은?

“성경의 성소수자”는 1학년 수업으로서 수업 설명에 적혀 있길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에 있는 성소수자와 성전환자들에 대해 배우며 신학교들이 오랫동안 보류해왔던 성별과 성을 근대적 의미를 사용하여 접근함으로써 새로운 성경적 젠더를 공부한다’라고 쓰여 있는데, 결국은 성경적 의미를 왜곡하고 타협하여 휴머니스틱한 성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성별이 있다?”

RELG 032(종교과목) 학과에서는 하나님의 성별마저도 질문하는 수업을 가르치는데요, 그 신학 이름은 바로 “Queering God: Feminist and the Queer Theory-성소수자 하나님: 여성주의자와 성소수자 신학”이라는 수업입니다(그림 참조). 이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유대인과 기독교 서적에서는 분명히 남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정말 남성일까?”

하나님이 모성애같은거로 양육하시고, 용서하며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을수있다면 하나님이 여성일수도 있다고 생각할수 있지않을까? 여성을 의미할까?

이 수업에서는 신에 대한 페미니스트와 동성애자의 저술을 연구하고, 페미니스트와 퀘이 신학 사이의 긴장을 탐구하고, 신성과 성별의 한계를 뛰어넘고자한다. 주요 주제는 성, 젠더; 남성 성; 해방; 성별; 페미니스트와 퀘이 이론이다”라고 적혀있습니다.

“Queering the Bible(성소수자 성경연구)” 수업내용:

“이 수업은 (성경에서) 동성애 퀘어와 트랜스(젠더)를 찾는 독서를 조사한다. 고대 시대에 제작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학작품 중 하나인 성(sex), 젠더, 성정체성의 복잡성을 학생들에게 소개한다. 성서와 종교가 성별과 젠더에 관해 말하는 것에 대해 오래 피해왔었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 이론적 접근 방식으로 성경을 읽게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에 비평가들은 스와츠모어 대학의 종교 과목은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성경적 가치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한 비평가는 성경이 정죄하는 동성애 행위에 대한 금지령을 이 대학 과목들이 중립화 시킬



뿐 아니라, 창조물인 인간이 건드려서는 절대 안 될 창조주 하나님도 스스로 드러내지 않은 성별을 언급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지아 주에 있는 보수적인 기독교 대학으로 알려진 Truett-McConnell 대학교는 스와츠모어 대학이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적 지도자이며 잘 알려져 있는 달라스 제일침례교회 목사인 Dr. Robert Jeffress 도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침묵적인 영적 위협에 빠지게 된다 고 스와츠모어 대학 운영진과 리더들에게 왜곡된 수업을 정지할 것을 경고하며 하나님을 성소수자라고 암시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이 여성일 수도 있다고 암시하는 조작적인



(manipulative) 수업내용과 학교의 의도는 곧 현대적 우상 숭배이고 더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을 현대 문화의 부도덕함에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모욕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기독교로 시작되었던 퀘이커교가 이런 과목을 가르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이런 과목을 통하여 배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혼동은 치명적이고 그들에게 오랫동안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스와츠모어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대학, 신학교 안까지 쳐들어오고 있는 거짓의 영과 미혹의 영, 그리고 조작적인 한 영으로부터 신학교들이 타협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고, 이미 타협이 된 신학교들은 하루 속히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점령지의 98%를 잃은 이슬람 테러 단체 ISIS!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ISIS가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점령지(영토)의 98%를 잃어버리고 테러 조직의 소위 “칼리프(caliphate)”의 절반이 다시 체포됐다고 미군 관리들이 승리의 소식을 이번에 밝혔습니다.

전 미 공군중장(David Deptula)은 말하기를 “오바마 행정부 때는

전쟁을 과도한 세부관리하며 군대에 부담스러운 규칙을 만들어 전쟁을 훨씬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항공 전략들을 피하고 백악관에서 제한 조치까지 취한 결과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곤 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더 많이 발생했다... 백악관은 ISIS가 통제하던 석유 공급소를 공격할지 말지 결정 내리는 데만 2014년 이후 15개월이나 걸렸기 때문에 ISIS들은 그 사이에 수백 만명을 공격하고 민간인들을 노예삼기

위해 꼭 필요한 전쟁자금 8억불을 만들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당시의 고충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정보기관 평가에 따르면 현 정부의 강력한 ISIS 테러 집중공격으로 인해 이라크와 시리아에 ISIS 전투자들이 불과 2년 전만해도 4만5천명이었는데 현재는 겨우 1천명 미만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3만명의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과 지역 파트너들이 힘을 합쳐 지하드 테러범들을 7만 명이나 몰살시키는 승리를 거두고, 겨우 몇 천명만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보고입니다.

현재 남은 ISIS 중심지는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 부근의 아주 작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 때는 ISIS가 오하이오 주만한 지역을 소유했었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ISIS가 크게 패배한 반면, ISIS는 그들을 따르는 테러범들에게 계속 테러 공격을 수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에 도 카불에서 자살 테러 공격이 있었기에 ISIS 테러에 대한 정책은 계속하여 강력히 행해질 것이라고 미국무부의 Brett McGurk는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참으로 1년 만에 ISIS 테러를 무찌르는데 놀라운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온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죽이고 있는 ISIS 테러들이 속히 소탕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어떤 이단에 속한 사람과 변론을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기에 특별한 능력이지만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데, 혹 교회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어떤 이단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버에서 이희은

A: 좋은 질문입니다. AD250년경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서 태어나 이집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 되었던 아리우스(Arius)라는 인물에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을 따르는 사상을 아리우스주의(Arianism)라고 부릅니다. 아리우스가 주장한 것은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리니티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웨인 그루텐의 조직신학을 보면 아리우스는 성자는 어느 한 순간에 성부에 의해 창조되었고 따라서 창조되기 전에는 성자도 성령도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성부만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성자는 다른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했고 다른 피조물보다는 훨씬 더 위대하지만 모든 속성에 있어서 성부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본질에 있어서 성부와 비슷하고 닮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있어서 성부와

### 알렉산드리아 감독 아리우스는 성자와 성령의 신성 부인

같은 본질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p.348). 아리우스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른 구절에 크게 의존합니다(요1:14, 3:16, 18, 요일4:9). 그들은 주장하기를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면 이는 성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리우스주의를 지지하는 듯 한 또 다른 성경구절은 골1:15절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성부에 의해서 어느 시점에 존재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의 정통교리에 도전하는 주요 이단으로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아리우스는 당시 플라톤주의에 의해 만들어져 크게 유행하던 그리스의 철학 신플라톤주의에 영향을 받은 그의 주장을 가르침으로써 많은 추종자를 얻었습니다. 신플라톤주의(Neoplatonism)는 신성의 절대적 단일성만이 최고의 완전성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아타나시우스(Athanasius)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성자를 반신으로 전락시켰으며, 성자만이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킬 수 있다는 구속 개념을 훼손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325년에 니케아에서 모인 공의회, 즉 교회들의 총회에서는 이 같은 아리우스의 주장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 후 니케아 회의(the Council of Nicaea, AD 325)에서 아리우스파를 정죄하였습니다. 니케아 회의에서는 성자는 성부와 같은 본질(homoousion)이라고 확정지었습니다..

정통 신앙을 지켜낸 황제로 알려져 있는 테오도시우스는 381년에 초대 공의회 중 두 번째 공의회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소집하여 1차 공의회인 니케아 회의가 채택한 니케아 신조를 재확인하여 아리우스파 문제에 중지를 찍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직영

www.reformedpse.ca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캐나다 분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직영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특전

1.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2. 각종 장학금 제도
3. 목회학과 졸업자는 총회 목사 고시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게 됨
4. 여교역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및 그 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5. 목회학 과정(주간반), 신학부 과정(야간반)은 운영됨
6. 편목 과정 있음(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교단 가입)
7. 평신도도 과목별로 수강할 수 있음

## 2018학년도 봄 학기 입학 안내 (주·야간)

주간: 목회학과, 선교학과, 여교역학과

야간: 신학과, 선교학과

원서 교부처: 본교 사무실(온세상장로교회 내)

1110 Finch Ave. W. #1-2 Toronto ON. M3J 3M2

제출 서류: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신앙고백서 1부, 명함판 사진 2매, 입학전영료 30불

원서접수 마감: 2018년 1월 29일(월) 오후 4시

입학시험 및 면접: 2018년 1월 30일(화) 오전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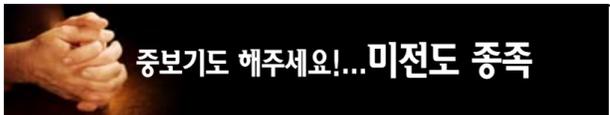
개강예배 및 오리엔테이션: 2018년 2월 1일(목) 오후 6시

문의처: 교무처장(장영일 목사), 학생처장(박원철 목사)

Tel (416)554-7495, joshuajang1@gmail.com

\* 홈페이지: www.reformedpse.ca(입학원서 다운로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분교장 정관일 박사



###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 멕시코의 후이츨(Huichol)



후이츨족의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다. 역사적으로, 그들 지역의 험준한 지형 때문에 그들은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격리됐다. 1720년 대까지 스페인 식민주의의 침략을 받지 않았으며, 심지어 스페인 사람들에게 정복된 후에도 상당한 수준의 자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획득한 후, 후이츨족은 '메스티조(mestizos)'라는 스페인-인디언 혼혈민족과 알력이 있었는데 그들 이 후이츨족의 영토를 차지하려 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후이츨족은 더 이상 고립돼있지 않고 멕시코 사회와 경제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Huichole), 테비(Tevi)나 위자리카(Wizarika)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주로 서부 멕시코의 서시 에라마드레 산맥에서 주로 산다. 이 지역은 멕시코에서도 가장 험한 지형 가운데 속한다. 높은 솟은 대지와 절벽, 강 계곡이 이 지역의 특색을 이루며 관목림과 가시나무들로 뒤덮여있기 때문이다.

### 삶의 모습

대부분의 후이츨인들은 자급하기 위해 식량을 재배하는데, 옥수수나 콩, 스쿼시(호박의 일종), 칠리(고추의 일종)가 흔히 재배하는 작물이다. 이런 것들은 동물이 끄는 나무쟁기와 호미 같은 걸로 경작한다. 또 대부분 가정에는 소, 닭, 돼지, 칠면조 같은 가축을 키운다.

후이츨 남자들은 전통의상의 하나로서 밝은 색조로 수를 놓은 면이나 무명 셔츠를 입는다. 가족 샌달을 신고 끈으로 묶은 야자 모자를 쓴다. 여자들은 색깔 있는 스커트와 블라우스를 입으며 밝은 색깔의 목걸이로 멋을 낸다.

결혼은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부모들이 정혼을 함으로써 한다. 후이츨인들은 대개 14세와 17세 사이의 나이에 결혼을 한다. 후이츨의 대가족은 "란초(rancho)"라는 거주지에서 함께 살며 여러

한 자그마한 공동체는 핵가족으로 개개의 가족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거주지에는 공동 부엌과 "시리키(xiriki)"라고 하는 가족 사당이 있는데, 이곳에 란초의 조상들이 모셔져 있다. 그러한 건물들은 중앙 광장을 둘러싸고 있다. 가족들은 전통적으로 돌이나 흙벽돌로 지어서 초가지붕을 얹는다.

인근의 란초 지역들을 함께 묶어 사원지역(temple district)으로 부르고 사원지역들은 또 보다 큰 공동체 지역(communitary district)에 속한다. 이러한 공동체 지역은 무당이나 주술사이기도 한 장로인 "카위테로(kawiteros)"들의 장로회가 통치한다.

### 신앙

그들은 카톨릭이 지배적인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후이츨인들 대다수는 애니미즘 신앙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인간이

아닌 사물에도 영혼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은 불, 태양, 비와 같은 자연에 존재한다고 믿는 영혼과 신령들을 달라고 자 하는 것이다.

후이츨인들은 주술사가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무당들은 추측컨대 어떻게 병을 고치고 축제의식을 거행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꿈을 통해 지시를 받는 것 같다. 무당들은 때로는 3일이나 계속되기도 하는 기도들 통해 신령과 직접 교접한다. 또한 그들은 마술이나 마법을 쓰기도 한다.

후이츨인들의 믿음에 의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은 지하세계에서 5년간의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 그 여행이 끝나면 영혼은 땅으로 다시 돌아와 암반수정의 형태로 무당에게 잡히게 된다. 그 수정은 시리키(가족 사당)에 놓여져 피와 제물로 신성시되는 것이다.

### 필요로 하는 것들

후이츨인들은 억압당하는 민족으로 구세주를 간절히 필요로 한다. 그들은 정령과 다신 숭배로 둘러싸여 있으며, 자부심이 강한데다 너무나도 독립적인 민족성을 갖고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오늘날 예수의 복음을 후이츨인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 전례 없는 기회가 있다. 신앙성경과 영화 "예수"는 그들에게 이용할 수 있으며 멕시코 정부는 처음으로 외국 선교사가 자국에 거주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이츨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와 더불어 그들 가운데 사역할 사역자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 인터넷 뉴스

### Internet News

#### 얼어붙은 지구촌 새해맞이...혹한·테러에 취소·축소

세계 각국은 2018년 새해맞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색 있는 옥외 행사로 유명한 북미 지역은 최강 한파에 각종 이벤트가 취소됐고, 최근 새해 전야 행사에서 대규모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던 유럽은 재발 방지 및 테러 경계 강화에 나섰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국가들은 신년을 앞두고 뒤편 혹한으로 새해맞이 행사 계획을 대폭 축소 또는 취소하는 분위기다.

CNN방송 등 현지 언론들은 구급 29일 미 북동부 지역에서 저온 쇼크로 죽은 상어 사체가 해변으로 떠밀려오고, 캐나다 남동부 유니페에서는 허공에 뿌린 물이 공중에서 곧바로 얼어붙는 등 기이한 광경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는 새해 전야 축하 행사 브란덴부르크 문(門) 파티에 최초로 여성 전용 '안전지대'가 설치된다. 2015년 필름 전야 축제에서 여성을 타깃으로 한 성추행과 강도사건이 발생했던 전례를 대비해서다. 당국은 피해를 감지한 여성이 안전지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테러 경계 강화는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공통 과제로 떠올랐다. AFP통신은 두 차례 테러 공격이 있었던 뉴욕시가 타임스퀘어를 중심으로 경계검문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영국 런던도 무장경찰과 경찰관 등을 대거 투입할 예정이며, 터키는 아예 주요 지역 신년 축제를 취소 또는 금지할 예정이다.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의 한 쇼핑몰에서는 무술년 '개'의 해를 맞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모습을 한 개 조형물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일명 '트럼프 개'(사진)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발 헤어스타일과 찡그린 눈썹에 붉은 목도리, 특유의 손가락 레스처까지 꼭 닮게 만들어졌다. 올해 72세가 되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식으로 '개피'에 해당한다.

#### 미 목회자 배우자 70% "교회 안에 신뢰할 사람 거의 없어"

미국 교회 전임 사역자의 배우자 대부분이 사역에 대한 소명의식을 느끼면서도 교회 안에서 갈등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퇴 후 생계문제 등에 대한 고민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 목회자의 배우자 722명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90%)은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인관계' '재정문제' 등에 대해선 적절스러운 속내를 드러냈다. 응답자 10명 중 7명(69%)은 '교회 안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절반(49%)은 '만약 공동체에서 자신의 솔직한 기도제목을 공유한다면 그저 가시거리가 될 뿐이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또 목회자 가정으로서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86%)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 남침례회 북미 임무위원회 고문 캐시 리턴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압력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라며 "목회자와 배우자가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버리고, 특히 자녀 양육에 관해서는 다른 성도들이 그들을 예수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부모로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응답자의 68%는 '은퇴에 대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지 걱정한다'고 밝혔고, 41%는 '질병,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한다면 가족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또 응답자 10명 중 6명

(59%)은 '교회 사역이 가족과 보낼 시간을 제한한다'고 답했다.

#### 미, 판문점 연락채널 가운데 엇갈린 반응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판문점 연락채널이 가동되자 미국의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4일 '따침내 북한에 대한 회소식'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판문점 연락채널이 복원되고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논설위원일 일동' 명의로 작성된 사설은 "북한이 단박에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그럴 가능성에 진지하게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그러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으로 빠져들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규정했다. 이어 "외교를 통해 긴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어쩌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결이라는 중요한 잠정조치로 진전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사설에서 "북한 핵 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제공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NYT는 "한국이 남북대화를 통해 군사훈련 중단이나 추가 제재 거부 등 너무 많은 양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그런 위험부담을 무릅쓰고라도 대화는 할 가치가 있다"고 썼다.

로버트 칼린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과 조엘 윌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김정은의 제안이 단순한 전술 이상인 9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공동기고문을 싣고 "북한의 대화제안이 진지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연락채널 개통을 직접 발표하면서 '김정은의 위엄'을 받았다고 공개한 사실이 주목했다. 북한이 메시지에 무게를 실었을 뿐 아니라 북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걸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과 공식 직함을 사용한 것은 문 대통령을 예우한 것일 뿐 아니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긍정평가하고 실무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도 북한의 태도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이유로 꼽았다. 안도니 우 구테레슈 유엔 사무총장은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을 환영했다고 파란 하크 유엔 부대변인이 밝혔다.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대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렌, 로버트 아인혼 선임연구원은 의회 전문매체 '더 힐' 기고문에서 "올림픽 이후 북한은 미사일과 핵실험 유예를, 한국과 미국은 연합 군사훈련의 규모와 장소, 시기 등을 조정해 대화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엘리엇 에이브람스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TV에 출연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뜻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한·미 군사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조심스런 접근을 당부했다.

#### 사사건건 부딪치는 트럼프-캘리포니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주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고 7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보수적 연방정부와 진보적 주(州)의 충돌이다.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세제, 이민 정책, 총기 규제 등 부딪치지 않는 사안이 없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의 성

인 대상 판매를 허용했다. 전미 50개 주 중 6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것이다. 그러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연방검사들에게 마리화나 판매·소지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연방정부의 법 집행과 주정부의 정책이 충돌하게 된 것이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통과시킨 세제 개편안은 기존에 무제한이던 지방세 공제 혜택을 1만 달러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주택 가격이 비싸고 세율이 높은 캘리포니아가 타격을 입게 됐다. 주의회는 주민들에게 세금 재앙을 안겨줄 수 없다며 주(州)세를 기부금 형태로 납부해 공제를 더 받도록 하는 대응 방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도 캘리포니아와 충돌하는 사안이다. 히스패닉이 인구의 40%이며 불법체류자가 230만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10월 무차별적 불법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피난처주(sanctuary state)'를 선포했다. 이에 맞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의 토머스 호먼 국장대행은 피난처 정책을 폐는 정치인들을 잡아넣겠다고 위협했다.

캘리포니아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신분증명서에 남녀 성별 표기 의무를 없앤 것도 트럼프 행정부 방침과 어긋나는 정책들이다.

캘리포니아만 반트럼프 성향이 강한 것은 아니지만 50개 주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3950만명)와 세계 6위 수준의 경제규모 때문에 주목받는다. 주지사와 주의회 상·하원의장, 주도(세크라멘토) 시장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에 골프장과 저택을 갖고 있음에도 취임 후 한 번도 찾지 않았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주는 허리케인 피해를 입었을 때 여러 번 갔지만 캘리포니아는 큰 산발이 나도 가지 않았다.

#### 트럼프, "남북회담 100% 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열리는 남북회담을 적극 지지하면서 남북이 올림픽 이슈를 넘어서 다른 의제를 논의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당장 통화할 의향이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대통령 별장이 있는 매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회담이 잘됐으면 좋겠다"며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문제를 넘어서는 것까지 논의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 "남북이 올림픽 문제를 다루고 거기서부터 뭔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그래서 나는 남북회담을 100%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 국무부가 이들 전 정례브리핑에서 남북회담이 비핵화 등을 의제로 다루는 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에 비하면 확 달라진 태도다. 허드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4일 "남북대화 의제는 올림픽이나 기타 국내 문제로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개입할 것"이라고 말해 북·미 대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어 '김정은과 당장 통화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면서 "나는 대화의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다만 "현재조건 없는 대화를 한다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렉스 티러는 국무장관은 지난 5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북회담이 미·북 대화나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질지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다"며 "남북회담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정책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며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북한은 대화가 비핵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러는 장관은 "북한이 전 세계가 희망하는 길로 가기 전까지는 제재의 형태로 불이익이 커질 뿐"이라며 "군사우선이 첫 번째 선택이 아니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했지만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확보하기 위한 부담이 얼마나 큰지 북한은 물론 역

내 다른 국가들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대화가 작동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린다"고 지적하자 "그렇게 특징을 짓더라도 내버려 두겠다"며 "우리의 모든 카드를 내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 미, 대테러외교 10대성과 하나로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꼽아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대테러외교 10대성과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꼽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전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일 공식 블로그 '딥노트(DIPNOTE)'를 통해 지난해 한 해 테러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관련한 10대 성과를 소개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을 그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

미 국무부는 "국무장관이 지난해 1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이는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 테러행위를 지원하고 있다는 렉스 티러스 장관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치가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켰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으나, 2008년 11월 조지 부시 전 행정부와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다가 9년 만인 지난해 11월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됐다.

#### 기후변화 탓 '죽음의 바다' 급증

기후변화 탓에 수중 산소가 고갈돼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Dead zone)'가 1950년 이래 4배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의 기행으로 미국 스미소니언 환경 연구 센터의 데니스 브레이트버그가 이끈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데드존'은 바다나 큰 호수에서 수중 산소 농도가 낮아 생물이 질식사하거나 죽는 지역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연구팀은 산소가 전혀 없는 '죽음의 바다'는 1950년 이래 4배 증가했으며, 산소 농도가 매우 낮은 해안 인근 지대도 10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육지와 인접하지 않는 바다에서는 데드존이 1950년 이래 수백만 km² 증가했다. 이는 유럽연합(EU) 지역 면적에 맞먹는 규모다.

해안 인근 데드존도 같은 기간 50곳 이하에서 최소 500곳으로 급증했다. 많은 지역에서 이에 대한 관찰, 추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전체 바다의 산소량이 이 기간 2%, 770억t 감소했다. 이는 바다 생물의 성장을 늦추고 번식을 방해하며, 질병을 키울 수 있다고 연구팀은 경고했다.

또 이 같은 추세는 장기적으로 대규모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바다에 생계를 의존하는 수억 명에게 대단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바다에서 식량을 공급받는 전 세계 인구는 빈곤국을 중심으로 5억 명에 이르며, 관련 종사자도 3억5천만 명에 달한다.

연구팀은 이 같은 대규모 산소 고갈은 화학연료 사용에 따른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수중 산소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안 인근 데드존의 경우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든 비료와 하수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번 연구를 이끈 브레이트버그는 "지구 역사에서 주요 멸종은 따뜻한 기후, 산소가 부족한 바다와 관련돼 있다"면서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안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 42. 노신태(1884-1963)

노신태 전도사는 1884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났다. 그는 1902년에 하와이로 노동이민을 한 후 1904년에 상항으로 이주하였다. 1907년 8월 솔트레이크에서 노동자로 있었고, 1909년에는 록폭, 1915년에는 다뉴바, 1918년에는 메리슬비를 거쳐 1923년부터 사도에서 체류한 것으로 보인다. 농장 동리의 소개로 사진으로 약혼하고 약혼한 지 10년이 되던 1923년 부산에서 노정순과 결혼하였다.

부인 김중상을 위문하였는데 이듬해 2월 장례식에도 참석했다. 임정구가 지방교회 순회사 출타하였을 경우 노신태가 설교를 하였다. 1935년 8월에는 주일 오후 2시 반 예배에서 '대백왕의 성역'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여 일반교우

다. 1936년에는 다른 해보다 노신태가 설교를 많이 맡았다. 1월 19일 주일 노신태의 주장으로 예배를 인도하였고, 특별히 일전에 나



노신태 전도사

성에서 이주한 안영호와 그의 가족 및 기타 손님이 많이 참석하였다. 다음 달 9일에도 그의 주례로 설교까지 하였고, 3월 8일 주일에

축비를 위한 오를랜드 한인교회 의원에 노신태도 참석했다. 노신태의 부인 노정순이 선원들을 위해 공중목욕탕 사업을 개업하던 1941년의 4월 갈리사 라이언 목사의 사회 하에 모였던 계사회에서 노신태는 집사부에 선정되었고, 그의 딸 노성애는 주일학교 부교장에 임명되었다. 그 해 5월 본 교회가 매년 1차 선교사업에 의하여 의연하는 전례대로 그도 헌금하였다.

노신태는 본 교회 대표로서도 자주 등단했다. 1941년 7월 연희전문학교 부교장을 역임하고 시카고 동양무역상회에서 시무하던 박용학 목사가 본 교회 목사로 취임하였을 때 환영회에서 노신태는 환영사를 담당했다. 그 해 추수감사절 예배에서는 다른 3명과 함께 그가 기도순서를 맡아 창립 20년 만에 단독 예배당을 마련하고 의자를 완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그 해 성탄예식에서 그의 자녀 노성애는 피아노 독주를 담당했고, 성탄창가 순서에 그의 어린 자녀들이 부른 '그

미국 해군 육전대에 종군하였던 박용학 목사가 책임목사로 김창수 목사가 부목사로 취임하는 취임식에서 노신태는 교회를 대표하여 두 분 목사를 기쁘게 맞다는 인사를 하였다.

1939년 임정구 목사가 소전한 후 오를랜드 교회 담임목사는 대해 달라진다. 1940년에는 장기형 목사, 1941년에는 박용학 목사, 1942년에는 김창수 목사, 1943년에는 박용학 목사, 1944년에는 김태목 목사, 1945년에는 임두화 목사가 부임하는데, 노신태는 본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나갔다.

임두화 목사가 상항교회로 떠난 후 노신태가 담임전도사로서 1946년부터 김창수 목사가 다시 부임하던 1947년까지 1년간 본 교회를 섬겼다. 1946년과 1947년에는 21명의 교적 중 14명이 비활동 교인이었다. 그는 1954년까지 김창수 목사의 지도하에 지방전도사의 임명을 받고 있었다.

상항 교회

독립운동을 위해 활동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국민회 의무금, 군인연초연보, 독립의연금, 특별의교비 의연금, 인구세, 국민회 보조금 등을 기부하여 독립운동에 관여했다.

지방전도사가 된 1929년 이후에도 그의 독립운동은 계속된다. 국민회 오를랜드 지방회 재무, 총무 및 서기를 역임하여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순국선현 추도식 연설, 국치기념식 개최사, 국민회 창립 29주년 기념식에서 '회원된 책임만 다하자'라는 주제의 연설, 이동녕 선생 추도식 기도, 오를랜드 지방회 헌기식 때 국치약사 낭독, 대한국민심정부 대일선전포고 1주년 기념식 때 1주년 기념사, 북가주 한인시국대회에서 '조국광복을 원조하는 대한인국민회'라는 연설 등에서 그의 조국 독립은 간절했다.

노신태의 기부행렬도 계속되었다. 지방전도사가 되기 전 그는 동맹단연금과 후원금, 국민회 의무금, 이충무공 유전보존 기금, 인구세, 삼일절 기념금, 중국 항일전쟁 동정금, 국민부담금, 임시정부 후원금, 광복군 후원금, 독립금, 군사운동금 등의 독립운동을 위한 기부를 아끼지 않았고, 한민국민공공채를 구입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문천군 기근구제금, 서간도 기왕출금, 최석길 병비연, 내지수 제구제금, 기근구제금, 이인신 재판비용, 김홍균 및 이대위 목사 장비연, 정신여학교 기부금 등을 기부하여 동포사랑을 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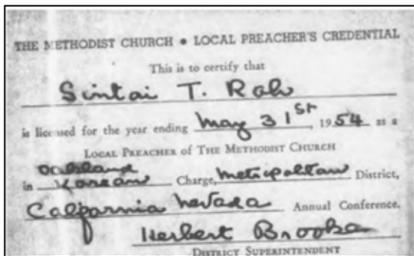
지방전도사가 된 후에도 계속되는 노신태의 동포사랑은 성탄 내지수출금, 김계선 동정, 조선여자 대학 및 동래실수학교 기부금, 일본 동경 한인고 교학생을 위한 헌옷과 기부금, 내지수제 및 한재의 연, 목구동포 수제구제금, 권일중의 변호사비, 최운백, 과수명 및 이계만의 장비연, 나성한인양로원 청연, 맞당사스, 쿠바 및 만주 재류 동포 구제금, 중경동포위문금 등에서 볼 수 있다.

소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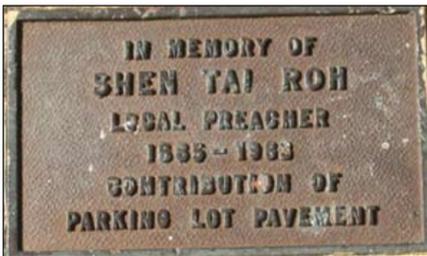
1963년에 노신태는 향년 79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상항교회는 상항교회장으로 그의 가는 길을 배웅했다. 이후 그의 부인 노정순은 오를랜드교회에 몸을 담았고, 1981년에 교회장립 67주년 예배 때 원로교인 표창을 받았다. 2014년 광복 69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는 노신태의 공적을 인정하여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damiensohn@gmail.com

## 1929년부터 오를랜드교회 지방전도사로 25년간 사역 도미 후부터 독립운동에 앞장, 기부행렬도 계속



지방전도사 연회증명서



주차장공사비 헌금 기념비

교역자와의 갈등이 생기면서 노신태는 상항교회로 옮긴다. 1960년대 그는 상항교회 정기적인 출석교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그의 부인 노정순과 함께 1962년 12월 교회 주차장 포장공사를 위해 2,400달러의 특별헌금을 하여 좀 더 원활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교회는 예배당 벽에 그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마련하였다. 본 기념비는 중국

## 교역자와 갈등으로 1960년대 상항교회로 이적 63년 별세, 교회장으로 장례...2014년 건국훈장 애족장 받아

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고, 다음 달에도 주일예배를 주장하여 재미스러운 예배를 보았다. 그해 10월 오를랜드에서 동고동락하였던 이희천이 귀국하게 되어 전 별예배를 드린 후 노신태가 만찬을 배설하였다. 그 해 상항동포들도 다수 내장한 가운데 성탄절 제 1부 마지막 기도를 그가 담당했

도 설교하여 일반 교우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으며, 5월 24일 주일에도 설교하여 '담일 다수 교인의 출석으로 많은 재미'를 보았다. 그해 11월 추수감사절을 맞아 그는 독신자들을 모두 청하여 감사절의 특별연회를 성대하게 배설하고 향응하였다. 1940년 10월 경남 성경학교 건

어리신 예수'라는 찬가 소리를 들은 교우들은 많은 기쁨을 얻었다. 1942년 노신태는 호텔 사업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교회가 우선이었다. 박용학 목사가 미국 해군 육전대에 종군하자 1942년 김창수 목사가 본 교회로 피임되어 그해 6월 취임식을 거행할 때 노신태가 사회를 보았다. 이듬 해 6월

타운에 있는 옛 상항교회 건물에 그대로 있다. 독립운동과 동포사랑 지방전도사가 되기 전 노신태는 공립협회 상항지방회 회원, 록폭 지방회 구제원, 적십자회 회원, 국민회 오를랜드지방회 재무 등으로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h4>뉴욕갯세미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01:30 수요예배: 오후 08:00 새벽기도회: 오전 05:30 금요기도회: 오후 08:00 한글학교: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nygod4c@yahoo.com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www.nygetsemane.org</p>	<h4>뉴욕몽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송병기 주일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기도회: 오후 08: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www.nyantichurch.org</p>	
<h4>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회: 오전 08:45 새벽기도회: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화,토)</p> <p>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cb.org</p>	<h4>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혜천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ccb.org</p>	<h4>뉴욕새벽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o.com</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윤준 주일예배: 오전 9:3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http://www.cp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h4> <p>담임목사: 이만호 주일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718)7406-7577, Fax: (718)388-1777 188-12 73 Ave., Fresh Meadows, NY 11366 www.nyantichurch.org</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 찬양공부: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전 10: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찬양예배: 오후 8: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주미전교회</h4> <p>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2부예배: 오전 6:00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영양예배: 오후 1:00</p> <p>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6:00</p> <p>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p>	<h4>퀸즈한인교회</h4> <p>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NCF영어: 오후 1:30</p> <p>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n.org</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교회를 찾습니다</h4> <p>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주일4부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7:30</p> <p>www.pco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na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현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브라질 새소망교회</h4> <p>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별예배: 오후 7:00</p> <p>Tel: (5511)6693-9754, Fax: (201)943-5204 RUA SANTA RITA, 216-PARI-340 PAULO-SP-BRASIL</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언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홍보기도회: 아침 7:40 영,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amp;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김성민 주일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h4> <p>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사제사서 설교)</p> <p>Tel: (595)251-574-985 E-mail: hanjkr@hanmail.net Cervantes NC, 1001, Asuncion-PARAGUAY</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구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은사)예배: 오후 9:00</p> <p>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 리더십 코멘터리 (56)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 2018년을 이렇게 시작하라

매년 그렇지만 지난 한해는 정말 다사다난이란 말이 틀리지 않는 해였다. 2017년에는 고난이 많았고 우리 모두에게 힘들었던 한 해였다. 고난은 헬리어로 '짜르'라는 말인데, '좁다, 억누르다, 억압, 비참한 고통' 등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고난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통보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가장 잔인한 불청객이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리더는 고난이 올 때 원망하지 않는다. 독일의 속담에 '고난은 기도의 선생'이라는 말이 있다. 신년에는 리더가 고난 가운데 원망 대신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 기적과 같이 그 고난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다. 2018년을 살아가면서 도중하차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란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신년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실 것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지금 달리고 있는 사람은 계속 달리고, 일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일하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공부하라.

2018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 주시되 감당치 못할 정도로 넘치게 채워 주실 것이다. 인생의

리 잘 달린다 해도 끝까지 달려서 결승점에 골인하지 않는다면 그의 수고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 운동경기와 공부는 1, 2, 3 등으로 평가되지만 인생은 1, 2, 3 등이 아니라 끝까지 달렸는가로 평가되는 것이다.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끝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후회 없는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이다. 인생길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줄기차게 달려가는 길이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길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리더들이 2018년 마지막 날까지 성실하게 살아가서 후회를 남기지 않기를 소원한다.

### 믿음을 지키는 리더가 되라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인생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과 목표는 다양하다. 그러나 훗날 인생이란 작품의 공정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졌으며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라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세상의 헛된 모래위에 지은 집인지? 믿음의 반석위에 지은 집인지? 그것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

회 없는 삶을 계획하라.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하루를 살고 한 달을 그리고 일 년을 살고 난 후에 "진정 최선을 다했노라"고 고백하며, 생의 마지막 날에는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리더가 되기를 기도한다.

인내로 명작을 탄생시키는 리더가 되라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독일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괴테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학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파우스트'를 썼다. 그런데 이 작품은 그가 23세부터 82세까지, 무려 60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이라고 한다. 명작을 완성하기까지 그는 긴 세월 동안 법학자, 정치가, 사상가, 소설가, 시인, 화가, 연출가, 물리학자, 식물학자, 해부학자 등의 다양한 종류의 일을 했다. 그러나 괴테가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었던 원인은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그의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의 인내(endurance) 때문이었다. 그는 일생을 통하여 연구하고 쓰고 또 퇴고하기를 거듭하여 인내로 세계적인 명작을 탄생시킨 것이다.

## 인내하는 자가 마지막에 행동과 승리의 면류관 얻어 인생 길 광풍에 하나님 더욱 의지하는 믿음 갖게 돼

2018년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중도에서 쉽게 포기하고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날은 재능이 많은 것만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시대이다. 명문대를 나와도 성공하지 못하고 용기와 신념이 있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인내와 끈기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루저가 되는 이유는 도중에 포기하기 때문이다.

2018년을 맞는 리더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회생활을 잘 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고, 또한 비즈니스에 성공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신년을 맞이하는 리더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인 것이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리더가 되라

영국의 역사학자인 칼라일은 "절망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희망으로 바뀐다"라고 말했다. 한때 절망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 절망이 희망으로,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다. 참을 것은 참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때 우리 인생에 더 큰 축복과 하

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리더에게 필요한 한 것은 '인내'라는 두 글자뿐이다. 결국 인내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는 행동과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리더가 되라

후회 없는 삶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후회란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오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다. 당신에게 주어진 인생길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했는지, 가난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매사에 최선을 다했다면 더 이상 후회라는 단어가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후회 없는 삶은 최선을 다하되 선한 싸움이어야 한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갈아뭇개고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겨야 한다는 잘못된 가치관이 난무하는 시대이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 깨끗한 승부는 반칙을 하고 상대에게 해를 주면서 자신을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페어플레이(Fair Play)를 했다는 것이다.

후회 없는 삶은 끝까지 달려가는 삶,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삶이다. 마라톤 선수가 아무

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소중히 아끼던 그 어떤 것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어떠한 시련과 핍박이 있다 해도 믿음만은 지켜야 한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는 1867년까지는 러시아의 땅이었다. 그런데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별로 가치가 없는 땅으로 생각해서 720만 달러를 받고 미국에 팔아 넘겼다. 미국은 알래스카를 산지 13년 만에 무려 3억 달러 어치의 황금이 묻혀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땅속에 3억 달러 어치의 황금이 묻혀있는 것을 모르고 당장에 손에 질 수 있는 720만 달러에 유혹된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에는 석유와 천연 가스의 자원들이 땅 밑에 엄청나게 매장 되어있다는 것은 숨겨진 미국의 보화로 온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계산하다가 영원한 값진 보화를 잃어버리고 후회한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만 바로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귀중한 것을 소유한 것이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잃지 않기를 바란다.

리더여, 2018년은 얼마나 기쁘고 가슴 벅찬 날들인가? 신년에는 후

한 해의 신앙고백을 하는 리더가 되라

인생길에 광풍이 불어와도 놀라거나 절망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갖자. 주님께서는 풍랑과 광풍도 말씀으로 잠재게 하시는데 능하신 분이시다. 우리 인생길에 광풍이 불고 큰 파도가 삶과 믿음, 나의 신앙까지 송두리째 흔들고 요동치게 만든다고 해도 우리는 그 속에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주님을 태우고 갔던 배도 광풍을 만났듯,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련과 고통 그리고 시험이 내 인생 길에 다가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세미한 신음 소리를 듣고 계신다.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삶에서 나의 소중한 믿음을 지키기 쉬운 것이다. 2018년을 살아가면서 광풍과 풍랑을 만날 때마다,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믿음과 절규를 주님 보좌 앞에서 아뢰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적의 물결이 터지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sondongwon@gmail.com

#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시립대학교 교수)

## 삼된 경건

연말이면 한 해도 돌아볼 겸 며칠 간 개인 시간을 가지러 조용한 곳을 찾아가는 시간이 내게는 일년중 가장 귀한 시간이다.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분의 사랑 속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캘리포니아를 떠나 다른 주로 피정을 다녀왔지만 올해는 아들 결혼이 1월에 있어서 먼 곳에 갈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친구가 소개해준 한 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수녀원에 며칠 간 머물렀다. 도착한 첫 날 수녀님이 매일 있는 아침미사가 같이 가겠느냐고 물어서 그러겠다고 했다. 이른 아침에 만나서 차로 이십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오래된 성당으로 미사를 갔다. 카톨릭 사무원으로 피정을 여러 번 갔었고 미사에도 몇 번 참석해 보았기 때문에 미사가 아주 생소하지는 않았다. 마침 성탄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O Come, O Come Emmanuel" 성탄 찬송을 부를 때는 새벽기도에 간 것처럼 기쁘게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신교도로서 미사의 자리에 함께 하면서 새삼 느낀 것은 카톨릭의 예식이 형식이 많이 치우친다는 것이었다.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단위에 올라 올 때마다 주님 신부에게 공손히 인사할 때는 모습이라든지 주님 신부가 성경을 읽을 때 보조 신부(?)가 성경을 펴주고 주님 신부 앞에서 있는 모습이 생소했다. 주님 신부가 들고 읽으면 될 성경을 왜 보조 신부가 들고 서있게 하는 것인지, 심지어 주님 신부가 앉아 있는 의자는 보조 신부가 앉아 있는 의자보다 더 멋진 좋은 의자였다.

우리로 말하면 교육문을 낭송하는데 거의 모든 신자들이 이미 그 내용을 다 외우고 있어서 별 생각 없이 입만 움직이는 듯이 보였다. 아무도 성경을 갖고 미사에 온 사람은 없었다. 나 혼자 두꺼운 성경을 들고 가서는 그 분들이 성찬식을 할 때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앉아 있었다. 카톨릭 교리로는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믿기 때문에 성찬식도 아주 경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매일 아침미사 때마다 한 명 한 명 출석해서 나가 떡을 받고 잔을 받았다. 오례전에 남편이 카톨릭에 구원인 있는 설교를 한 것이 미디어로 나간 후에 항의전화를 받느라 혼란 적도 있지한 형식에 얽매지 않는다면 미사를 드리는 경건한 태도는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다.

수녀원을 다녀온 며칠 후에 막내가 성탄절에도 일을 해야 하는 스케줄이어서 아이들과 같이 샌디에고에 있는 막내에게 가서 시간을 보내고 성탄 전날 주일예배를 가족이 함께 드리고 왔다. 샌디에고에 있는 잘 알려진 미국교회로 갔는데 교회 입구를 들어서니 테이블에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담은 일회용 개인 성찬키트(kit)이 잔뜩 놓여 있었다. 들어갈 때 하나씩 가지고 들어가라는 의미였다. 물론 교인 수가 너무 많으니 성찬식을 위해서 분병, 분잔을 다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잡히실 날 거룩하게 행하신 성찬을 기념하기에는 너무 효율적이고 실용화된 성찬식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예배 첫 시작 찬양팀의 곡은 복음 성가 아닌 크리스마스 캐럴이었다. 마치 극장을 연상하게 하는 화려한 무대 조명을 받고 계속되는 다른 곡들도 호의적으로 생각하면 조금은 기독교 메시지와 연결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많았다.

주보에는 "Asking Jesus into your life is as easy as A-B-C"라는 짧은 글자 아래 복음을 짧게 설명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으면 교회로 "구원 받았습시다"라고 텍스트를 보내라고 써 있었다. 주보에는 2017년 한 해 동안 그 교회를 통해 구원받았다고 텍스트 한 사람이 7,800명이라고 나와 있었다. 물론 무대공연 같은 찬양을 통해서 부담 없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ABC처럼 쉬운 공식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교회를 떠나는 마음이 무거웠다. 너무 형식적이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도 있을지 생각했던 카톨릭의 미사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너무 자유로워서 경건의 모양도 없는 가벼운 예배가 열렸기 때문이다. 참된 경건은 형식에 치우치지 않지만 존귀하신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 다한 정성과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lpyun@apu.edu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인영양회: 오후 2:00 글로벌영양회: 오후 7:30 세월기도회: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891, Fax: (714)772-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인영양회: 오후 2:00 글로벌영양회: 오후 7:30 세월기도회: 오전 9:30, 11:30 www.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천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p><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회: 오전 11:00 수요찬양회: 오후 7:30 EM: 대부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부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310)749-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amp; Puente) / www.nachimban.org</p>		
<p><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글로벌영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p>	<p><b>남가주사랑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양회 (장소: KOC, 평일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b>대웅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회: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 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p>	<p><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213)210-69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p><b>미주양광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회: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천년)영양회: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글로벌영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p><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한인영양회: 오전 9:15, 11:30 영양회: 오후 1:30 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h@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b>LA 복음연합감리교회</b> 담임목사: 이영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고등부: 오전 11:00 성도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www.lagumc.org</p>	<p><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회: 오전 2:00(대학부) 글로벌영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회: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 (CH), 사택: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일 예배: 저녁 5: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p>	<p><b>얼바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6:00(토)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St., Irvine, CA 92604</p>	<p><b>윌셔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 새벽기도회: 오전 6: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주요영양회: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01 L.A., CA 90010</p>
<p><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글로벌영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9 24시간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Ct., Fullerton, CA 92833</p>	<p><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한민)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경공부(목요일):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p>	<p><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글로벌영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ic.org</p>	<p><b>좋은마음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mpire Hwy., Yorba Linda CA 92886</p>	<p><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ch.com / e-mail: pastor@icornerstone.com Tel: (310)530-4040 (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천년) 청어울림: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96-4400 Tel: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은 참 역설적이다. 그럼에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시119:71).

있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 경험이란 쌓이는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한 이후 별의별 일들이 다 발생했을 것이고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모세는 심판관이 되어 정리를 했으나 날이 갈수록 문제는 점점 더 많아졌다. 나중에는 모세도 그리고 모세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는 백성들도 다 지쳐갔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묘안을 제시한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 일을 나누라는 조언이었다. 이는 지혜라기보

다는 경험에서 온 경륜이었다. 나에게도 실패와 좌절의 시기가 있었다. 그때 나는 낙심하여 자포자기 하지 않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 일주일만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쉬지 않고 읽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성경을 보는 것이라는 듯 읽고 또 읽었다. 잠자는 시간까지 줄이며 읽다보니 백 번 정도 보지 않았나 싶다. 중국에 가서 하루 열 시간 이상씩 성경을 가르치며 그때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성경을 보았는지

를 깨달았다. 당시에는 정독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막상 성경지식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읽은 성경이 생각나게 하시고 잠시라도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뜻도 선명하게 이해가 되었다. 뜻 없는 고난이란 없다는 말이다. 이제 2018년이 됐다. 누구라도 주관적인 자기의 지난 1년은 다사다난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난해 우리가 겪은 다사다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율례의 삶에 분명 유익이 되리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으니 죽음이라는 실체를 거의 모른다. 물론 개중에는 임사체험을 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다. 구랍 28일 목사님들을 만나기 위해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아주 심한 기침이 터졌다. 다른 때 같으면 머리를 움켜쥐어 머리가 울리는 것을 막았으나 운전 중이라 그럴 수도 없이 기침을 하니 중나도 모르게 아주 잠깐 의식을 잃었다. 나도 모르게 정신 줄을 놓은 것이 다. 기침을 하면서도 앞차의 흐름

을 따랐고 신호가 들어와 멈추지 않고 사거리를 건너기 직전이었는 데 정신이 든 내 눈앞 정면에 하얀 차가 보였다. 본능적으로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 충돌을 피했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 교차로는 매우 넓어 40여 미터는 되었으니 2,3초 정도의 아주 짧은 순간 정신을 잃은 채 차가 이동한 것이다. 잘나라도 늦게 내가 반응했다면 나는 좌회전을 기다리는 그 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을 것이고 만약 내가 핸들을 뜯 오른쪽 차선에 다른 차가 있었다면 그 역시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다. 결과는 아무 사고도 없었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나는 그냥 넘겨도 좋을 만큼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인가?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사고가 났다면 어쩔 뻔 했는가? 나 혹은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접미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이다. 감기몸살을 앓으며 심하게 기침을 하는 것은 분명 고통이다. 그러

나 그로 인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설정되었으니 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익이 아닐 수 없다. 지지부진한 일들로 인해 조금이라도 약해질 수 있는 내 인생의 목적과 나의 사명을 견어잡는 계기가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니 절로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고 그 결과로 손에 잡았느냐가 아니라 인생의 사고고락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는 이 확신으로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인생에게 닥치는 고난을 어떻게 유익으로 바꿀 것인가는 모두 자신에게 달려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시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통해서도 유익이 되게 도와주신다.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 비결, 그것은 불만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때 주어진다. hanmac@cmi153.org

이민115주년 기념 미주한인의 날 축하행사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축하공연도

미주한인이민 115주년 기념 제 15회 미주한인의 날 축하행사가 6일 오후 3시 LA한인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열렸다. 미주한인재단 LA와 평창동계올림픽 미주동포후원회(이상 대표 이병만 장로), 재미강원도민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 1부는 샘신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사회와 남가주한인목사회 찬양팀(인도 안다니엘 목사) 찬양인도로 시작됐으며 강홍순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부회장)가 대표기도, 최다니엘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부회장)가 성경봉독, 은혜한인교회 장로성가대가 특별 찬양했다. 이어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미국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한인사회'(마5:13-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정신여고동문합창단이 현금찬양, 김영구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직전회장)가 축도했다. 송병주 목사(선한정지교회) 사회로 열린 세미나는 최순길 목사가



미주한인이민 115주년 기념 제15회 미주한인의날 축하행사에서 이병만 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개회 기도했으며 이병만 회장이 축사, 박성근 목사가 '이민자의 나아 가야 할 새로운 방향!', 송병주 목사가 '1세 이민자들은 2세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의했으며 샘신 목사가 간증했다. 그리고 이종용 목사(미주한인재단 LA자문위원장/코너스톤교회)가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미주한인의 날 115주년 축하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축하공연으로 열린 3부 순서는 KAMA어린이합창단과 바트리오가 무대에 올라 공연했다. 이어 장소를 옥스퍼드플레이스호텔로 옮겨 진행된 미주한인이민 115주년 기념 및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을 위한 만찬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쉐퍼드대학교 부실경영으로 폐쇄

BPPE, 12월 22일 결정...웹사이트 통해 공고

쉐퍼드대학교가 부실경영으로 인해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BPPE)는 지난해 12월 22일 부실 경영으로 미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던 LA지역 기독교 학교인 쉐퍼드대학교의 학교 전면 폐쇄 결정을 내렸다. BPPE 산하 학생지원 구제사무실(OSAR)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쉐퍼드대학교의 폐쇄 결정사실을 공고한 뒤 최근 재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교육 당국은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학교가 폐쇄되더라도 재학생들은 누릴 수 있는 합당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학교가 폐쇄되면 해당 학생들은 등록금 대출 해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만일 대출기관이 어딘지 정확히 모를 경우 국립학생대출자료 시스템에 접속해 이를 확인하면 된다. 또 폐쇄 학교 재학생들은 학자금관리위원회로부터 등록금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해당 학생들은 등록금리커버리펀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가 폐쇄됐다고 해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다른 학교로 전학해 학업을 계속할 권리가 주어진다. 다만 전학 절차에 따라 다른 학교로 학점 관리 등을 이전할 경우 학자금 대출해지나 등록금 환불 절차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미 학교파산신청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베네딕도대학교 등 타 학교로 전학을 하기도 했다. OSAR 측은 퇴역 군인 학생들을 위한 혜택과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도 자세히 안내했다. 추가 정보 제공을 위해 해당 학생들은 자체 웹사이트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계속 주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파산신청 당시 본교는 부채 650만 달러와 매달 14만 달러에 달하는 건물 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쉐퍼드대학교의 폐쇄 결정은 본교 재정난으로 인한 것이다.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던 등록

생(학비) 및 외부 지원금에 대한 관리 및 운용 부실로 인해 지난해 1월부터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해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4월 학교 건물주로부터 퇴거하라고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미서부대학협회(이하 WASC)가 지난해 7월 쉐퍼드대학교에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WASC가 최근 학교 측에 파견한 조사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WASC는 경고 공문 및 보고서 등에서 △학교 재정 및 운영의 투명성 문제 △교수진 자격 조건 △학교 부채 △총장 및 리더십 문제 등 8개 부분의 부실운영 사항을 지적했다. WASC는 2018년도 봄에 조사팀 재방문 일정을 알리고 "지적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WASC의 인준 '후보 자격(candidacy)'도 박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99년 설립된 쉐퍼드대학교는 신학대학과 음악대학, 간호대학 등을 설치하며 종합대학으로 성장했으며 '제자임니까'를 저술해 한인에게도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오티즈 목사를 원로 학장으로 선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Youth Wave Conference가 진행되고 있다.

CSO 유스연합수련회... "The Way" 주제

주강사에 Duffy Robbins, 박형은 목사

지난 9년간 뉴저지 지역에서 중 소형 교회를 섬겨왔던 CSO(Church Support Organization)와 유스 사역단체인 Streamside Ministry와 함께 Youth Wave Conference(연합수련회)를 Ocean Place Spa & Resort in Long Branch에서 지난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성황리에 개최했다. 개교별 수련회를 준비하기 어

려운 교회들이 함께한 이번 수련회는 "The Way"라는 주제로 총 220명 35교회가 참여했다. 30여 년간 유스 사역을 섬겨온 Duffy Robbins 박사와 뉴저지 초대교회 박형은 목사가 주강사로 나섰으며, 각 분야마다 관심 있는 다양한 선택 세미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수련회 동안 유스 목회자를 위한 트랙이 운영돼 그들의

고민과 현안들을 함께 논의했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가치관과 신앙을 지켜낼 뿐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자세대가 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했다. 유스 목회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연합 수련회가 지속되길 원하는 바램을 드러냈다. 이번에 참석한 교회는 다음과 같다. 열린교회, 시온교회, 시나브로교회, 호산나교회, 수정교회, 가나안교회, 주님의교회, GCC, NY Christ, God's Vision, 임마누엘교회, 뉴저지순복음교회, 선교연합교회, 뉴저지우리교회, 지구촌교회, 사랑교회, 중앙장로교회, 복음으로사는교회, 평화교회, 축복의교회, 그레이스벤엘교회, 은혜와사랑교회, 꿈꾸는교회, 주소원교회, Kingsway교회, 대성교회, 효성교회, 시심나교회, Bridge Fellowship 교회. <기사제공: CSO>



제1회 연세 사랑의 말씀과 컵라면 제2차 LA지역 나눔행사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 1회 연세 사랑의 컵라면 나눔행사

OC지역과 LA지역 등에 총 5천 박스 전달

제 1회 연세 사랑의 말씀과 컵라면 제 2차 LA지역 나눔행사가 지난 12월 27일 오전 11시에 남가주 연세목회자회(회장 김기동 목사)와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센터(이사장 이영송)가 공동주최로 LA 한인타운에 있는 시니어센터에서 실시됐다.

지난 12월 20일에 열린 제 1차 OC 지역 나눔행사에 이어 제 2차 LA지역 나눔행사는 어려운 이웃과 타민족을 도울 수 있는 기관과 선교단체, 교회와 타민족단체 등 50여 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준비한 컵라면을 전달했고, 개인에게도 컵라면 한 상자씩을 나눠 연말에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연목회는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과 이재민, 타민족에게 사랑의 컵라면을 보내지는 뜻으로 연세사랑의 나눔 콘서트를 통해 드려진 현금과 남가주의 기관과 교회와 개인들의 후원으로 지난 OC지역 나눔 때는 2000박스와 이번 LA 지역 나눔 때도 2000박스를 그리고 작은 교회 등에 1000박스를 나눌 수가 있었다. 이번 행사를 위한 모든 행사 경비는 연목회와 연세대 남가주총동문회가 담당했고 현금과 후원금은 모두 사랑의 컵라면을 사는데 사용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컵라면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후원과 협력을 했던 160여명의 가장 의미 있는 성경 말씀을 전달해 더 뜻 깊은 나눔이 됐다. 또 포함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재민들에게도 사랑의 컵라면을 전달했다. 연목회는 이번 행사를 후원해 준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센터와 OC 한인회 및 여러 기관에게 감사표지를 표하고 사랑의 컵라면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연목회(714)262-1428로 연락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남가주 연세목회자회>

"국익과 국민위하는 외교관..."

김완중 신임 LA총영사 기자간담회

LA총영사관은 신임 김완중 LA총영사 부임에 맞춰 기자간담회를 지난 12월 28일 오후 3시 LA 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완중 총영사는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외교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총영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신임 총영사는 취임 후 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아리조나에 이어

캘리포니아도 한국과 운명전혀 상호인정협약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 하겠다"며 전임 총영사가 해왔던 일들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며 "여기에 더해 미국에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한인들이 미국 혹은 한국에서 신분 걱정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날로 개선되고 있는 민원실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식 민원

시스템(GFK, Government for Korea)을 도입해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미 새 시스템에 대한 용역 연구에 들어갔고 LA가 해외에서는 최초로 GFK를 테스트하는 곳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영사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한 영사 서비스 개선 방안을 연구할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비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과의 위안부 이면 합의와 독도 문제에 대

해서는 "독도는 100% 한국 영토로 일본의 역사왜곡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위안부 문제도 정부의 입장이 결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영사는 동포 재단 문제에 대해서 "총영사관은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한인 단체와 불편한 관계에 놓여서는 안된다"며 "협력을 통한 중재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모국방문과 한국어 교육 지원 등 뿌리교육을 강화해 차세대들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LA 한인사회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리더로 성장하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완중 신임 LA총영사는 외무고시 24회 출신으로 지난 1990년 외교부에 입문했다. 이후 외교부 소속으로 주일본한국대사관 2등 서기관, 오사카 총영사관 1등 서기관, 뉴욕 총영사관 영사, 주페루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싱가포르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을 거쳐 지난 2016년 3월부터 재외동포영사국 국장을 역임했다. 지난 9월에는 외교부공무원노동조합이 선정한 '우수 외교관'에 뽑힌 바 있다. <박준호 기자>

# 동부교계 게시판



## 뉴욕남교회 박치순 원로목사 별세

뉴욕남교회 원로목사인 박치순 목사(사진)가 1월 3일 저녁 7시8분 95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고 박치순 목사는 총회신학교를 1회 졸업생으로 1952년 목사안수를 받았다. 1960년 서울남교회를 개척시무하다 1975년 뉴욕으로 이민과 같은 해 3월 뉴욕남교회를 개척했다. 1939년 이몽희 사모와 결혼해 1남3녀를 두었으며 아들이 현재 남교회 담임목사인 박상일 목사다. 1월 7일 남교회 예배당에서 장례예배가 있었으며 8일 오전 발인예배 후 쿠키가든에 소재한 매플글로브 묘원에 안치됐다.

▲문의: (718)639-8383

## 뉴욕목사회 신년기도회 연기

뉴욕한인목사회(회장 문석호 목사)가 뉴욕일원에 불어 닥친 한파와 폭설로 인해 8일 예정했던 신년기도회와 산행을 연기한다. 일정은 추후 공지한다.

▲문의: (917)951-8291

## 동부개혁장신 2018학년도 봄 학기 학생모집

동부개혁장신교회신학교(학장 장영준 박사)가 2018학년도 봄 학기 신(靑)입생을 모집한다. 동 신학교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 신학교로 모집학과는 △대학부: 신학과, 선교학과(고졸, 4년) △대학원: 목회학(대졸, 3년), 기독교교육학, 선교학(대졸 2년) △여교역학과(고졸, 3년)이며 서류는 입학원서 1부, 목사추천서 1부, 최종학급 졸업 및 성적 증명서 1부, 신앙고백서 1부, 명함판 사진 2매, 입학전형료 30달러가 필요하다. 원서접수 마감은 1월 19일(금) 오후 6시, 입학시험은 20일(토) 오전 11시 면접 오후 2시.

▲문의: (718)463-7163

## 복음뉴스 창간 1주년 기념행사

인터넷 기독교인인 복음뉴스(대표 김동욱 목사)가 창간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갖는다. 일시는 1월 23일(화) 오전 10시30분 뉴욕 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

▲문의: (516)241-6024

## 미주동부 총신대신대원 동문회 신년하례회

미주동부 총신대학신학대학원 동문회(회장 박성원 목사) 신년하례회가 1월 15일(월) 오전 11시 든든교회(담임 남일현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683-8884, (917)353-5477

## BTS 한인동문회 신년모임

비블리컬신학교(BTS) 한인동문회 신년모임이 1월 22일(월) 오전 10시30분 플라싱에 있는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문의: (917)971-5761권혜택 목사, (917)882-5001문영은 목사

## 뉴욕동양제일교회 교회이름 변경 및 교회이전

뉴욕동양제일교회(담임 빈상석 목사)가 2018년 1월 1일부터 "친구교회"(Friends Church)로 교회 명칭을 변경했다. 또 동 교회는 3월 4일(주)부터 새로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다. 새 건물 주소는 252-00 Horace Harding Expressway, Little Neck, NY 11362(구, 뉴욕센트럴교회 건물).

▲문의: (718)760-5346



미주동부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송년모임에 참석한 동문들.

## 미주동부 연신원 신임회장 박성원 목사 송년모임, "젊은 동문들의 적극적 참여" 당부

미주동부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연신원) 송년모임이 지난 12월 6일 뉴저지 개신교수도원수도회(원장 김창길 목사)에서 열려 신임회장 박성원 목사(뉴욕나눔의집 대표)를 선임했다. 박성원 신임회장은 "연신원을 졸업한 젊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동문회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1부 예배는 김영호 목사 인도로 김정국 목사의 기도 후, 김상

모 목사가 "죽음을 준비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창길 목사의 광고, 김병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는 진경 목사의 기도로 시작해 지난 언더우드 100주년 기념 찬양음악회 행사와 모교 방문 및 1000만원 모교 발전 기금에 대한 김영호 목사의 보고 후 함께 참석한 사모들과 화기애애한 오찬과 교제를 나눴다.

(기사제공: 연신원)



김남수 목사가 허연행 목사에게 사역 매뉴얼 배턴을 전달했다. 선 순서대로 왼쪽부터 김남수 목사부부, 허연행 목사부부.

## 프라미스교회 DNA는 지속된다... 김남수 원로목사 추대 및 허연행 담임목사 취임식

뉴욕프라미스교회가 지난 7일 저녁 4시 김남수 원로목사 추대 및 허연행 담임목사 취임식을 가졌다. 이로써 프라미스교회는 1977년 2대 담임목사로 40년을 사역한 김남수 목사에 이어 허연행 목사가 3대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 허연행 목사는 지난 22년간 동 교회에서(수석)부목사로 사역해왔다.

김남수 목사는 "지금까지 3번 크게 울었는데, 구원 받았을 때, 신학교 입학 때, 프라미스교회 사역 시작하면서"라고 말하고 "그러나 은퇴할 때는 울지 않았다"며 "무거운 짐을 풀어서 감사하며 그 일은 맡은 허 목사는 안됐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김 목사는 "헌신된 성도들과 훌륭한 동역자들과의 시간이 행복했다"며 "후임자가 잘 하도록 후원하겠다"며 "프라미스교회와 모든 교회가 남은 생애를 바쳐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연행 목사는 "심대에 구원받고, 어머니 무덤을 방문한 어느 날 목회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했다"며 "지난 20여년 간 영적 멘토로, 또 삶으로 보여주신 김남수 목사님께 감사하며 지 교회 교우들과 교직원들, 교단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허 목사는 "포지션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2가지는 첫째 강단에서 외치는 피의 복음, 전국 복음과 둘째는 프라미스교회 DNA를 잘 지켜갈 것"이라며 "포스트모던시대에 세속의 물결이 강단을 범접하지 못하도록 지키겠다"고 말하고 "김남수 원로목사님이 지혜와 경륜으로 교회의 울타리가 돼주시고, 세계 선교를 향해 질주하실 때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서포트 하겠

다"고 다짐했다.

이날 설교는 하나님의성회(AG) 전 총회장 및 총무 등을 역임하고 프라미스교회의 교단가임과 김남수 목사의 사역을 적극 후원한 토마스 트라스크 목사가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한 사람"(삼상9:6-10)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트라스크 목사는 김남수 목사에 게 AG가 전하는 감사패를 증정한 후 "이 윈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전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 열정의 사람으로 교회는 기도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강조했다.

담임목사 취임식은 AG한국 총회장 김명옥 목사 집례로 취임서약, 기도, 공포, 교인서약, 교직원 서약, 취임축하패 증정의 순서로 진행됐다.

원로목사 추대식은 허연행 목사 집례로 경과보고, 기도, 추대패 증정, 사역배턴 전달, 꽃다발 증정, 원로목사 인사, 담임목사 인사로 이어졌다.

이날 한국총회에서 김남수 목사에 게 공로패를 증정했으며, 뉴욕교회도 공로패를 전달했다.

축사는 이만호 뉴욕교회총회장과 김삼래 벨리포지대학교 총장, 최정규 뉴저지온누리교회 담임이 했으며, 영상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사령교회 오정현 목사가 축사했다.

특별 찬양으로 송정미 교수와 프라미스어린이합창단, 히즈라이프팀의 주기도문이 특별공헌됐다.

(유원정 기자)



왼쪽부터 평통 황미광 교수, 박동부 회장, 박성원 목사, 중앙장사 대표.

## 민주평통, 뉴욕 나눔의집에 후원금 전달

민주평통화일자문회의뉴욕협의회 박동부 회장은 12월 8일 플라싱 소재 한인노숙자를 위한 한인무료 쉼터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을 방문해 쉼터 운영 후원금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나눔의집을 돕는 것은 한인 동포사회의 일"이라며 "평통후원을 계기로 한인 각 기관과 교회, 단체들이 협력해 한인노숙인

들의 자립과 재활을 돕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나눔의 집 돕기에 한인들이 더 큰 관심과 후원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나눔의집은 15명 내외가 거주하던 곳에서 지난해 5월 약 30명 정도 머물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큰 주택으로 이전했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 시낭송, 노래자랑, 푸짐한 선물과 만찬... 해외기독문학동우회 송년 모임

### 해외기독문학동우회 송년 모임

해외기독문학동우회(회장 황동익 목사)가 지난 12월 30일 송년 모임을 가졌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황동익 목사는 마태복음 1장 21-23절을 본문으로 "새해를 여린양 예수와 함께 맞이하자"며 "새해를 맞는 의미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황 목사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메시야로 믿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며 "이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다. 내가 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나 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갈 때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황 목사는 "구원받은 자는 삶

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2018년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사랑 받은 것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주님이 주신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이날 시낭송과 노래자랑 등을 하며 푸짐한 선물과 만찬을 즐겼다.

또 회장 황동익 목사는 최근 출간된 시집 "을"을 배부했다.

총무 조앤리 권사는 동우회 회원인 조의호 목사, 최광진 목사, 김해중 목사가 한국 '창조문학'에 등단했음을 알리고, 오는 3월 2명이 추가 등단하게 되며, 5월중으로 등단작가(5명)와 출판기념회를 겸해 큰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해외기독문학동우회 송년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이 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2월 정기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2017년 마무리...재정보고 및 사역보고

###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2월 정기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가 지난달 27일 12월 정기예배를 갖고 2017년도를 마무리했다.

회무는 유상열 목사의 개회기도 후 사역보고와 감사보고, 회계보고가 이어졌다. 광고는 이찬양 간사, 폐회기도는 김인한 장로가 맡았다.

이날 2017년 사역으로 △방문선교-엘살바도르(황영진, 황은숙 선교사), 8월 7-10일, 참가인원 4명, 사역내용: 선교센터 환영행사 및 선물증정, 전도집회, 가정방문 및 선물 전달, 현지인 교회개척을 위한 노방전도(산벨립페교회), 학교방문 및 선물전달과 △지원선교-과테말라(장경순, 박윤영 선교사), 사역내용: 화장실 4개, 부부막 4개, 교실 개선사업(지정후원)을 보고했다.

회계보고는 아동후원과 일반재정으로 나눠 △아동후원은 수입 36,626.32달러, 송금 28,315.00달러, 잔액 8,311.32달러로 보고했으며 △일반재정은 수입 53,715.19달러, 지출 47,794.06달러, 잔액 5,921.23달러로 보고했다.

회계 권금주 목사는 8월 단기선교와 12월 후원의 밤 행사를 따로 보고했으며 일반회비와 아동후원비도 나눠서 보고했다.

감사 이종명 목사는 이날 참석치

못하고 서면을 통해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잘 처리됐다"고 보고했다.

동 기구는 현재 콜롬비아와 페루, 과테말라, 코트디부아르, 북한에 아동 106명을 후원하고 있으며 후원비는 아동 1명당 월 30달러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이스라엘 목사 인도로 2017년 선교-엘살바도르(황영진, 황은숙 선교사), 8월 7-10일, 참가인원 4명, 사역내용: 선교센터 환영행사 및 선물증정, 전도집회, 가정방문 및 선물 전달, 현지인 교회개척을 위한 노방전도(산벨립페교회), 학교방문 및 선물전달과 △지원선교-과테말라(장경순, 박윤영 선교사), 사역내용: 화장실 4개, 부부막 4개, 교실 개선사업(지정후원)을 보고했다.

회계보고는 아동후원과 일반재정으로 나눠 △아동후원은 수입 36,626.32달러, 송금 28,315.00달러, 잔액 8,311.32달러로 보고했으며 △일반재정은 수입 53,715.19달러, 지출 47,794.06달러, 잔액 5,921.23달러로 보고했다.

회계 권금주 목사는 8월 단기선교와 12월 후원의 밤 행사를 따로 보고했으며 일반회비와 아동후원비도 나눠서 보고했다.

감사 이종명 목사는 이날 참석치 못하고 서면을 통해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잘 처리됐다"고 보고했다.

동 기구는 현재 콜롬비아와 페루, 과테말라, 코트디부아르, 북한에 아동 106명을 후원하고 있으며 후원비는 아동 1명당 월 30달러다. 한편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이스라엘 목사 인도로 2017년 선교-엘살바도르(황영진, 황은숙 선교사), 8월 7-10일, 참가인원 4명, 사역내용: 선교센터 환영행사 및 선물증정, 전도집회, 가정방문 및 선물 전달, 현지인 교회개척을 위한 노방전도(산벨립페교회), 학교방문 및 선물전달과 △지원선교-과테말라(장경순, 박윤영 선교사), 사역내용: 화장실 4개, 부부막 4개, 교실 개선사업(지정후원)을 보고했다.

회계 보고는 아동후원과 일반재정으로 나눠 △아동후원은 수입 36,626.32달러, 송금 28,315.00달러, 잔액 8,311.32달러로 보고했으며 △일반재정은 수입 53,715.19달러, 지출 47,794.06달러, 잔액 5,921.23달러로 보고했다.

회계 권금주 목사는 8월 단기선교와 12월 후원의 밤 행사를 따로 보고했으며 일반회비와 아동후원비도 나눠서 보고했다.

감사 이종명 목사는 이날 참석치 못하고 서면을 통해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잘 처리됐다"고 보고했다.

(유원정 기자)

## 신앙칼럼

(4면에서 계속)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심히 분해했다. 이 사건 앞에서 이 분노가 잘 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안색이 변했다. 얼굴색이 달라졌다. 그 마음에 갈등, 고민을 말하는 것이다. Complications 그 갈등을 여기서 말해주는 것이다. 몹시 괴로워 한 것이다. 그래서 가인은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 가인의 얼굴을 생각해보라. 이게 지금 괴로워 할 일인가?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내 속마음 내 진실은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지, 왜 안색이 변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하여 공손하게 수락하지 못한 것이다. 겸손하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그가 고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본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물을 다 받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이

사람이 안색은 안 변했을 것 같다. 그런데 한 사람 것은 받고 자기는 받지 않으시니까 고민한 것이다. 이 건 질투이다.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은 원죄, 그 원죄 중에 가장 뿌리 깊은 것이 시기 질투이다. 그것은 아주 무서운 것이다. 가만히 보라. 전부가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다.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니다. 다른 사람 잘 사는 게 배가 아파서 그렇다. 그런데 시기 질투 때문에 마지막에 신앙까지 있어버린다. 이성도 병들어 버리고 그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한다. 시기와 질투란 그

인성을 사람의 마음을 아주 썩게 만든다. 결국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잘못된 것을 사람에게서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책임전가를 한다. 그 책임적의 대상 아벨을 생각한 것이다.

이런 가인의 얼굴은 이웃 지향적, 타인 지향적 속성이 묻어있다. 내 문제는 내 문제이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다. 그 누구 때문도 아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 그 누구와의 관계도 아니다. 이것이 성경이요. 이것이 신앙이다. 가인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다시 하나님께 바로 나와야지. 왜? 아벨을 생각하는 것인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던, 안 받았던 왜 내 기분이 나빠지는가?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 50년 혹은 70년 동안에 많은 혁명을 일으켰다. 그 혁명의 기본철학이 뭐냐 하면 내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다. 내가 가난한 것이 저 부자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가인의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남의 얘기 할 게 아니다. 내가 어려워진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쉽게 말한다. 무슨 사건이 하나 터졌을 때 총체적 위기라느니 사회적인 문제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그 말하는 동안에 그 뒤에 있는 비밀한 말 한마디가 있다. 너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고, 내 책임은 아니라는 말로 들리는 것이다. 여기에는 해결이 없다. 모든 책임은 내 자신에게 있다. 그걸 알아야 한다.

revpetergong@hotmail.com

# 새해 첫날을 기도회로 시작 LA목회자들 제 40회 산상 통일 기도회 열어

2018년 새해에 LA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헐리우드 산에 모여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열었다.

그리피스파 정상에 있는 헐리우드 산에서 1월 1일 오전 7시30분에 열린 이날 기도회에서 박운송 목사(LA복음연합감리교회 협동/엘피스 가정사역원 대표)는 '어떻게 평화통일을 할 수 있을까요?'(롬12:18)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요즘의 남과 북의 정세를 보면, 어떻게 평화통일이 이뤄질 수 있을까?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새해첫날 그리피스파 헐리우드 산에서 열린 제40회 산상통일 기도회에서 참석한 LA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박 목사는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이 살뜰을 유

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이 오게 되며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조건도

〈박준호 기자〉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때 통일은 이뤄진다. 이념을 떠나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설교에 이어 이날 참석자들이 통일을 위해 합심 기도했으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른 뒤 마쳤다.

산상통일기도회는 연합감리교회(UMC) 가주 태평양연회 소속 한인 목회자들이 40년전에 모여 시작됐다. 이날 기도회는 UMC 목회자들 외에 타 교단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참석해 교단을 초월한 기도회로 개최됐다.

또한 이날 평화통일을 위한 강명구 씨 유라시아 횡단 마라톤 참가에 대해 정연인 AOK대표가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임원들이 2018년도 첫임원회를 갖고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해" 남가주교음협 2018년 임원 및 행사계획 발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 신년 임원회가 뉴욕에 있는 더블트리호텔에서 6일 오후 5시 30분에 열렸다. 전현미 회장은 "교회음악협회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8년 사업은 다음과 같다. △1월: 선배회장단 식사대접 △4월: 후원의 밤 행사 △6월 17일: 제 37회 찬양합창제 △8월 25일: 제 5회 학생찬양경연대회 △11월: 리더십 △12월: 총회. 임원회 전 전현미 회장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백낙금 부회장이 기도했으며 전현미 회장이 시편 33편 1-3절을 봉독하고 인사말과 함께 교회음악협회를 위한 합심기도를 드렸다.

2018년도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를 이끌어갈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전현미(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부회장: 백낙금(USC 찬양선교회) △총무: 강민석(감사한인교회) △회계: 김혜정(가나안교회) △서기: 김지선(주님의빛교회) △합창분과위원장: 전요셉(생수의강선교회) △작곡분과위원장: 이현정(엘리스온성교회) △CCM분과위원장: 랜디김(생수의강선교회) △학생분과위원장: 윤진영(나성열린문교회) △기약분과위원장: 오윤정(중현선교회). 〈박준호 기자〉

## 남가주장신 총동문회 신년하례회

남가주장신교회신학교 총동문회(동문회장 노진걸 목사) 신년하례회가 1월 1일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에서 열렸다. 노진걸 목사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김주리 전도사가 기도했으

며 조의용 목사가 특별찬송, 서정운 목사(장신대 명예총장)가 '에벤에셀'(삼상7:1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박성규 목사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는 2018년도 사무식 및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를 드리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소망소사이어티 사무식 및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새로 이전한 사무실(5836 Corporate Ave. Ste110, Cypress)에서 사무식 및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를 1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가졌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이사, 후원자, 자원봉사자와 지역인사 및 소망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사무식은 지난 10년을 보내고 새롭게 10년의 활동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김미혜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김도민 목사(라팔마 한인연합감리교회)의 기도, 테니 김일두 씨(아르모니아시어즈)의 특송, 정영민 목사(포도원 교회)의 신년 메시지로 이어진 이날의 행사는 2017년 소망의 활동을 사진

으로 돌아보고 최경철 사무총장이 2018년의 계획을 발표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최 사무총장은 소망소사이어티의 올해의 역점 사업이 소망소사이어티의 지부 설립과 아프리카 차드 지부의 가정결연사업임을 강조하면서 관심과 후원을 부탁했다.

신년사를 통해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유분자 이사장은 소망케어교실의 이전 소식과 앞으로 1년 동안 수고할 자원봉사부장을 소개하고 임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소망소사이어티가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하면서 전화번호가 임시 변경됐다. 사무실(677-465-5678), 휴대폰(714-321-4776)으로 연락이 가능하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남가주 장신 동문회 신년하례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 서부교계 게시판



### 세리토스장로교회 신년축복성회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박규성목사) 신년축복성회가 19일(금)부터 21일(주)까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는 주제로 열린다. 강사 최광언 목사는 아르헨티나 제일교회를 1989년부터 28년째 섬기며 지역교회의 부흥의 분이 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북부 후후이 지역에 크리스천 학교를 건립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인 기독교 교육에 앞장 서고 있다.

▲문의: (562)677-7777

### 중현선교회 신년부흥회

중현선교회(담임 민종기 목사) 신년부흥회가 11일(목)부터 14일(주)까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강사는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이며 일정은 11일(목) 저녁 7시30분, 12일(금) 새벽 5시20분, 저녁 7시30분, 13일(토) 새벽 5시20분, 저녁 7시, 14일(주) 1, 2, 3부 예배.

▲문의: (818)549-9191

### 고 김바울 목사 추모예배

토렌스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는 고 김바울 목사 추모예배를 1월 13일(토) 오전 10시 Green Hills Memorial Park(27501 South Western Ave RPV)에서 갖는다.

▲문의: (310)370-5500

###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 공동체세우기 부흥회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현 목사)는 공동체세우기 부흥회를 '약속의 땅으로...'라는 주제로 12일(금)부터 14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권오서 목사(출천중앙감리교회)이며 일정은 12일(금) 저녁 7시30분, 13일(토) 오전 6시, 8시, 저녁 7시30분, 14일(주) 1부(오전 8시), 2부(오전 11시 15분), 오후 1시30분.

▲문의: (858)279-9191

###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남가주 연합회 신년하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남가주 연합회 신년하례회가 '신앙의 유산'이라는 주제로 13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점심제공) 라팔마연합감리교회(담임 김도민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4)226-0300

### 남가주성결교회 교역자회 신년하례회

남가주성결교회 교역자회 신년하례회가 14일(주) 오후 5시 유니온교회(담임 김신일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626)858-8300

### 에브리데이교회 초청집회

에브리데이교회(담임 최홍주 목사)는 김요셉 목사 초청 집회(with Kidz Team)를 17일(수)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문의: (818)368-0089

## LA한국교육원 뿌리교육 프로그램 안내

LA한국교육원(원장 오승걸)은 미주한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국인생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8년 상반기 뿌리교육을 2월 3일(토)부터 5월 16일(수)까지 14주에 걸쳐 LA한국교육원(680 Wilshire Pl. #200, LA)에서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한국어, 사물놀이, 난타 모듬북, 한국전통무용, 태권도, 한국 전통공예, 종이접기, 음식스토리텔링, 가야금, 해금, 어린이연극 놀이, 서예, 바둑, K-POP, 한국동요 등 21강좌로 교육활동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는 한국의 정체성이 녹아있는 전래동요, 놀이문화와 연결시켜 새롭게 한국동요 실이 재개설된다. 뿌리교육 프로그램 수강신청은 9일(화) 오전 9시부터 받으며 수강료는 프로그램 당 30달러(태권도복 10달러, 한국무용 신발 10달러 별도)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LA한국교육원 홈페이지(www.kecl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213)386-3112, 3113 (기사제공: LA한국교육원)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8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 2018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18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종교인으로서는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를 가진 분.

####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8년 5월 18(금) - 21(월)  
2) 고시 장소: Old Westbury, New York, USA

####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1)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이상4과목)  
2)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시편 110:1-7  
(2) 신약 주해 - 로마서 4:17-25  
(3) 논문 제목 - 개혁주의 관점에서 들 라이트의 뉴 퍼스펙티브를 평가하라.  
(4) 설교 원고 - 누가복음 16:19-31  
①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② 고시 기간 중 설교설기고시를 치를.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자에게 이메일 할 것.  
① 레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② 레터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③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필자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④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 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⑤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JohnJhoOTExegesisPaper.pdf)  
⑥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3) 면접 고시

####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8년 6월 이전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4)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6) 명함판 사진 2장  
7) 고시료: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FCPCNY (재시금 \$100)

####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8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42회 총회기간(5월22일-25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함.

####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조용철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9일-21일 총회고시장소) 중에 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2)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조용철 목사(Rev. John E. Jho) / Email: drjho@hotmail.com or jhothoben@gmail.com  
주소: 6554 W. Desert Inn Road Las Vegas, NV 89146 U.S.A. / 전화: (702) 296-9193

####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고시부 부장: 조성훈 목사 (718) 986-8442, kfpcny@gmail.com  
2) 고시부 서기: 조용철 목사 (702) 579-7576, drjho@hotmail.com  
3) 고시부 회계: 한재현 목사 (831) 9207043, jhanrev@gmail.com

## “종교개혁 500주년 넘어 새로운 선교 1세기로”

### 교계 주요 연합기관·교단 신년 메시지

2018년 새해를 맞은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과 교단들은 일제히 신년 메시지를 발표하며 무술년(戊戌年)을 향한 비전을 선포했다. 특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어 새로운 선교 1세기를 향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전계현 최기학 정명구 이영훈 목사)은 “동성애와 동성혼, 반기독교적 정책, 교회에 파고드는 이단들의 발호 등 새해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신실하고 거룩한 교회로 다시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교총 산하 5만5000여 교회가 기독교를 향한 사회적 불신을 딛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기호 대표회장은 “이제는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새소망의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정치적 혼란과 혼동의 정국을 맞이했던 2017

년을 딛고 한국교회가 세상에 자유와 회복을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회가 억눌리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길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연합 이동석 대표회장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난 2018년 새해는 말이 아닌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원년”이라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교단 안팎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불신과 대립, 갈등을 넘어 지혜를 모으자고 입을 모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전계현 총회장은 “탐욕과 허욕 좋은 걸치레를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헌신하고 충성하자”고 말했다. 이어 “재난·재해 피해자, 미자립교회 목회자 등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며 위로하자”고 제언했다.

예장통합 최기학 총회장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절이 지나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공동체로서 서야 한다”며 “2019년 3·1 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민족의 희망이 되고 절망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피난처가 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예장대신 유충국 총회장은 “기독교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소망이고 등불이며 한국교회는 구원의 방주”라며 “새해에 가정과 교회, 사회가 하나 되는 화해와 연합의 물결이 일어나 그늘진 곳이 사라지고 희망이 가득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안희복 총회장은 “국가와 민족, 교회가 생존과 도약의 갈림길에서 지혜로운 결정과 결의를 모아야 하는 ‘골든타임’을 맞고 있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성장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권면했다.

2000원까지 올랐으나 올 들어 20% 정도 감소한 것이다. ‘십일조를 내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2012년 28%에서 2017년 39.5%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현금 감소는 교회가 펼치는 구제 및 선교 등의 중앙기 사역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관식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를 묻는 설문 결과도 공개됐다. 고 한경직 목사가 14.5%로 1위에 올랐다. 이어 고 옥환흠(6.8%), 고 주기철(5.3%), 조 용기(3.3%), 장경동(2.9%), 고 순양원(2.6%), 이찬수(2.2%), 고 하용조(2.1%) 목사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000명, 기독교인 1000명, 비기독교인 1000명을 상대로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됐다.

후 집중 거부로 군사법원에서 3년형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요즘은 입대도 하지 않고 병역거부를 주장한다. 이것은 민간 법원에서 병역 기피로 2년형을 받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가 속성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이걸 약용해 학문, 사상, 성적 취향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박성제(자유와인권연구소) 변호사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속성 양심적 병역거부와 집중 거부 는 국가 안위를 위협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고, 현지인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등 내실을 다진다면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교사들도 지금이 한국 선교의 변곡점을 자각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최근 개최한 한국선교지도자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미래전략팀을 구성하고 청년세대 선교동원법 등을 연구할 것을 결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선교훈련 말 현재 캠프 개발도 구상 중이다. 또 연합선교 훈련의 필요를 느끼고 각 기관의 선교훈련 담당자들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예장합동 ‘정오기도운동’ 발대식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전계현 목사)는 8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회관에서 ‘2018 한국교회와 가정 그리고 다음세대를 위한 3355 정오기도운동

## 새해 목표·표어로 미리 보는 2018 한국교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예수 안 믿는 이들 믿게 하는 한 해”

전국 각지의 교회들은 새해가 되면 복음전파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영혼 구원에 전심을 다한다는 데는 예외가 없지만, 유달리 2018년 올해에는 차세대 신앙교육에 방점을 찍는 곳이 많았다. 한국사회의 고령화가 교회 구성원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미래세대 양육이 교회에도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중순을 전후해 국민일보 목회자포럼 회원 등 한국교회에 애정을 갖고 있는 목회자 9명을 선정해 개교회의 새해 표어와 중점 사역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전체 한국교회의 올 한 해 계획을 들여다보기 위해서였다.

**복음 위에 세우고 보내자**  
부천 순복음중동교회(김경문 목사)는 2018년 교회 목표와 표어를 구분했다. 목표는 ‘복음 위에 세우고 보내자’ 내 가족 구원해 축복받자’이고, 표어는 ‘성령 충만하여 능력 행하자’ ‘말씀 충도약의 갈림길에서 지혜로운 결정과 결의를 모아야 하는 ‘골든타임’을 맞고 있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성장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권면했다.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  
수원중앙침례교회(고명진 목사)는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을 표어로 정했다. 예수 안 믿는 이들은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믿게 하자는 것이다. 해마다 같은 표어다. 하지만 이 교회는 올해 차세대 사역에 역점을 두기로 결심했다. 올해 3월에는 수원 광교지역에 중·고 대안학교인 정원 360여명의 중앙예담학교를 개교한다. 고명진 목사는 “올해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종교인 과세화 비뚤어 차별금지법 추진 등 성경적 가치와 세속적 가치가 크게 충돌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말이다.

**주께서 일하시는 교회**  
부천 서문교회(이성화 목사)는 올해 교회 표어를 ‘주께서 일하시는 교회’로 정했다. 이성화 목사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했다”며 “이를 더 실현하고자 이같이 정했다”고 했다. 서문교회는 이 표어를 바탕으로 주일학교 활성화에 역점을 둔다. 이어 “교회에 아이들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며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백배로 갚으신다**  
서울 대치순복음교회(한별 목사) 표어는 ‘하.백.배.’다. 하나님은 백배로 갚으신다는 의미다. 한별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갚아주신다”며 “30배 60배 아니 100배로 갚아주실 것을 확인하면서 이 표어를 만들었다”고 했다. 올해는 평신도와 함께하는 사역에 집중한다. 한 목사는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신다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처럼 평신도와 목회자가 하나 되는 교회가 가장 힘 있는

## 선교사 170개국 2만7436명 파송

### KWMA 지난해 말 현재 현황 공개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2만7436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파송 선교사가 가장 많은 권역은 동북아시아이며, 주요 사역으로는 교회 개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세계선교협의회(KWMA)는 8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안디옥성결교회(신화석 목사)에서 제28차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을 보고했다.

KWMA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교단 선교부 및 선교단체 227곳이 파송한 선교사는 170개국 2만7436명(이중 소속 제외)이다. 전년보다

231명 증가한 수치다. 권역별로는 일본과 중국, 몽골 등 동북아시아가 631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5893명), 미국 등 북아메리카(3075명) 등의 순이다. 한국 선교사가 600명 이상 활동하는 ‘10대 파송 국가’에는 동북아시아 A국을 비롯해 미국과 필리핀, 일본, 태국, 캄보디아 등으로 전체 선교사 수의 50.7%(1만4502명)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선교사들의 주요 사역(중복 집계)은 ‘교회 개척’이 가장 많다. 153개국에서 1만4624명이 활동 중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서울 한신교회(강용규 목사)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표어다. 강용규 목사는 “올해는 한국교회 교회다워지는 해, 본질로 돌아가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며 “한신교회가 모범이 되자는 마음을 담아 담았다”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그동안 세상에 빛이 되어 하는 데 그렇지 못했다. 지난해엔 각성하는 해였고 올해는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해이기도 기대한다”고 했다. 한신교회는 선교적 차원에선 북한 의료선교에 큰 관심을 보였다. 강 목사는 “지난해 독일에서 조선그리스도연맹 인사들과 만났을 때 북한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며 “이것이 현실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주 안에 위대함 경험하는 교회·성도**  
경기도 화성 동탄주다산교회(권순웅 목사)는 예배소서에 나오는 말씀인 ‘주 안에 위대함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를 표어로 삼았다. 권순웅 목사는 “하나님과 교회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며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안에 있는 위대함, 인도하심, 능력을 경험하고 양육 받기를 기대하며 정한 표어”라고 밝혔다. 올해 한국교회와 관련해 권 목사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개인화 세속화가 강화되고 저출산과 이로 인한 교회학교 쇠퇴로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이런 때일수록 신학을 사상화하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호와를 아는 지혜**  
서울 덕곡로교회(박호종 목사)는 ‘여호와를 아는 지혜’를 추구하기로 했다. 예배소서 1장 17절에 근거해 일하고 체험하고 행하는 신앙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는 것이다. 박호종 목사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기도와 말씀이 필수적이다. 이 두 축을 세우는 사역에 치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처치플랜팅 등 선교에 새 전환점**  
올해 한국교회 모습과 관련해 21세기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은 “선교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선교적 교회운동인 ‘처치 플랜팅’에 주목했다. 그는 “지금 세계 교회의 주류는 처치플랜팅”이라며 “한국도 개교회주의,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네트워크를 통해 번두리에 교회를 세우는 운동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성도들은 노령화되면서 한국교회의 공동화현상은 심화될 것”이라며 “목회자들이 자기 스타일을 버리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목회의 원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션라이프**  
한국 선교사가 600명 이상 활동하는 ‘10대 파송 국가’에는 동북아시아 A국을 비롯해 미국과 필리핀, 일본, 태국, 캄보디아 등으로 전체 선교사 수의 50.7%(1만4502명)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선교사들의 주요 사역(중복 집계)은 ‘교회 개척’이 가장 많다. 153개국에서 1만4624명이 활동 중

교회이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히스토리 메이커”라고 했다.

**끝자리에 서는 교회**  
서울 정릉별연교회(박태남 목사)는 ‘끝자리에 서는 교회’가 되기로 했다. 끝자리는 누가복음 14장에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에서 따왔다. 끝자리는 대기하는 자리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자리다. 교회는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이를 실천기로 했다.

**은혜 위에 더 큰 은혜**  
서울 서현교회(이상화 목사)는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새 표어로 정했다. 이상화 목사는 교회경신을위한목회자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내다가 지난해 담임목사로 청빙됐다. 김경원 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이 목사는 “원로 목사를 중심으로 지난 50여년간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 왔다”며 “이를 이어가자는 취지”라고 했다. 교회는 올해부터 금요기도회를 재개한다. 이름도 재미있다. ‘성령으로 불태우는 금요기도회’를 줄여 ‘불금’이라고 이름 붙였다.

**여호와를 아는 지혜**  
서울 덕곡로교회(박호종 목사)는 ‘여호와를 아는 지혜’를 추구하기로 했다. 예배소서 1장 17절에 근거해 일하고 체험하고 행하는 신앙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는 것이다. 박호종 목사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기도와 말씀이 필수적이다. 이 두 축을 세우는 사역에 치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처치플랜팅 등 선교에 새 전환점**  
올해 한국교회 모습과 관련해 21세기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은 “선교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선교적 교회운동인 ‘처치 플랜팅’에 주목했다. 그는 “지금 세계 교회의 주류는 처치플랜팅”이라며 “한국도 개교회주의,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네트워크를 통해 번두리에 교회를 세우는 운동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성도들은 노령화되면서 한국교회의 공동화현상은 심화될 것”이라며 “목회자들이 자기 스타일을 버리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목회의 원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션라이프**  
한국 선교사가 600명 이상 활동하는 ‘10대 파송 국가’에는 동북아시아 A국을 비롯해 미국과 필리핀, 일본, 태국, 캄보디아 등으로 전체 선교사 수의 50.7%(1만4502명)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선교사들의 주요 사역(중복 집계)은 ‘교회 개척’이 가장 많다. 153개국에서 1만4624명이 활동 중

## “종교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결정 내려야”

### 216개 시민단체 현재 앞 회견, 여호와의증인 신도들 헌법소원 관련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와인권 연구소 등 216개 시민운동 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현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가 병역법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병역법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을 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출신인 임친영(범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가 있으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을 감당해야 한다”면

서 “그런데 여호와의증인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자신 들만의 방법으로 병역을 하겠다고 한다. 이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금을 내겠다는 말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직까지도 병역기피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합법적 병역기피 제도까지 만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상식선에서 현재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임 변호사는 덧붙였다.

지영준(바른군인권연구소) 변호사도 “여호와의증인은 과거 입대

## 해외 선교사 증가율 0.69% 역대 최저

### 한국선교연구원 ‘선교운동 동향’ 발표

지난해 한국교회가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는 전년보다 늘었다. 하지만 증가폭은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선교연구원(KRIM·원장 문상철)이 2일 발표한 ‘한국 선교운동 동향’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159개 국가에 2만1220명의 한인 선교사가 파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선교사의 수는 전년에 비해 145명 증가했다. 문제는 증가율이 다. 2014년 1.90%, 2015년 1.01%, 2016년 1.94%로 소폭 오르내리다가 지난해 0.69%를 기록했다. KRIM이 선교동향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회의 장기 침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선교연구원 이전 본부장은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성도 수가 감소하고, 자연스럽게 선교현장에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교회 동력도 떨어지

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선교사 수가 늘어난 데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다수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잉여 인적 자원이 선교지로 진출하는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선교사의 연증가율이 0%를 지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연증가율 감소는 과거와 비교하면 더 뚜렷하다. KRIM에 따르면 2006년에는 선교사 수 연증가율이 15.8%, 1990년대에는 평균 35%에 달했다. 이 같은 증가율을 잣대 삼아 2030년까지 ‘한국인 선교사 1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장로회신학대 한국일(선교학) 교수는 “한국교회는 그동안 양적 성장에 취해 단순히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데 집중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선교지 현장을 잘 이해

제로 기도하고, 5가지 경건생활 실천을 확산하는 운동이다. 예장합동총회 노재경 교육총장장은 “정오기도운동은 교단이 추구하는 기도운동의 모델을 제시했다”며 “발대식을 통해 협력기관이 22개로 늘어나 기도운동 열기가 더 널리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계현 총회장은 설교에서 “권위와 질서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 하나님의 권위도 무너져 가는 현실”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 기도도 사회를 바로 보고 기도하는 크리스천을 전국에 확산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 교도소 선교칼럼 (34)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 한 번의 실수가 준 아픔

수잔이라는 한 여자 재소자가 교도소 목사에게 상담을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해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술을 즐기는 삶을 살았는데 2달 전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 아픔이 너무나 커서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잃고 62세의 나이에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교도소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한 남자를 만나 그 남자와 약혼을 하고 행복한 결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술을 마시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고 수잔에게 이야기해주며 자기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잔에게도 술을 마시지 말 것을 계속 당부했는데 그녀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수잔이 자기의 약혼자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잔은 삶의 폭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사건의 연속은 그녀에게 세상이 마치 뒤엎어진 것 같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부드럽게 수잔을 대하던 약혼자가 술을 마시자 별안간에 마귀에게 씌인 사람처럼 그녀를 죽이려고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간신히 그 상황에서 빠져 나온 후, 딸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자기 엄마를 목 졸라 죽이려고 했다는 소식에 흥분해 수잔의 약혼자를 찾아 가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일로 인해서 수잔은 난폭한 폭행을 저지르도록 유독한 사람이라는 죄명으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게다가 폭행으로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은 아파트에서 받아 줄 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그녀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작은 실수가 이렇게 큰 폭풍을 몰고 올 줄은 몰랐으며 모든 것을 갑자기 잃게 된 자신의 현실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에게 술을 끊지 못하고 계속 마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자고 하자 그녀는 외로워서, 또 별다른 할 일이 없어서 습관적으로 술을 마셨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으나 교회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와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으며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교도소에서 출감한 후에는 교회 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단계에 가담하여 봉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교도소에 와서 기 위해 술을 마실 이유도 시간도 없을 거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녀는 일전에 아들로부터도 똑 같은 말을 들었지만 그러한 조언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오직 술을 벗 삼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일을 당한 후, 그제서야 일찍 아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며 후회를 하며 한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 받게 될 형에 대한 두려움, 그렇게 착하고 수잔에게 헌신적이었던 약혼자를 잃게 된 것,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대한 상처는 너무나 컸습니다. 수잔은 형 받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불안과 초조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앞으로는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을 배우고 평안을 찾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 그녀가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을 극복하도록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이별의 편지를 쓸 것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세울 것을 권했습니다. 계속 눈물을 흘리는 그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상실감을 극복하게 된 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건네주고 그녀를 위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수잔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으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허송세월을 보내며 술과 마약으로 인생을 낭비하다 교도소에 오기도 합니다.

범이 엄한 미국에서, 특별히 콜로라도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처음 걸려도 교도소에서 형을 살게 됩니다. 미국에는 술이나 약물과다복용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서 근본적인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수잔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술을 의지하는 습관을 길러 곤경에 빠지게 된 경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시간을 허비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줄도 모른 채 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술과 마약으로 인생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수잔의 이야기가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삶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성경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yonghui.mcdonald@gmail.com

## 신년메시지

### 믿음의 통찰력 갖고 살아가는 한 해되길

SBC 한인총회장 이호영 목사(씨월드침례교회)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백척이나 되는 장대 끝처럼, 일촉즉발 같은 험난한 시대상속에서 잠언(23장34절)의 말씀처럼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탈출구 없는 절망적 상황 가운데 막혀 있을 때 우리로 실족치 않게 하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고 곧 우리의 구원 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셨으며 2018년 이 새로운 한해를 변함없이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새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실수와 허물로 인해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잘 살아 드리지 못함에도 이사가 43:18-19,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언어 행실을 선하게 하며 무슨 일에든지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없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께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소나비 같은 은혜를 주셔서 주의 기업을 견고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주의 은택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맛보는 한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3:13-14,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푼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서 사도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원하며, 모든 사랑과 존경으로 동역자 되신 성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익이 넘치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dubc@msn.com

### 희망의 아침을 기다리며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황의춘 목사(뉴저지트렌튼장로교회)



우리 국민과 나라는 작년과 금년에 6.25동안 이후 최대의 격변기를 맞이했습니다. 과거 한국 전쟁을 전후하여 정당과 정치가들이 수없이 일어나 백가쟁명 시대로 우격다짐 같은 집회를 선동하여 신탁동지 반대와 찬성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이해도 못한 채 또 남북한이 합작 정부를 세우야 한다 아니다 남북이 따로 세울 수밖에 없다고 국민 대다수는 소문과 회유에 따라 양측 집회에 열성을 다해 참석하고 소리 높여 구호를 제창했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무질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떤 힘인지 난 그때는 몰랐지만 의외로 조용하고 일사불란했습니다. 반대로 남한은 혼란과 불법이 난무하여 어린 나를 불안케 하더니 무서운 6.25동란이 일어나 시체를 보며 눈물 흘리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곁에 질린 나는 갈갈이 떨며 울지도 못 하고 피난을 갔었습니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있었던 극심한 이념 갈등을 작년과 금년 다시 체험하며 대단한 우려가 되살아났습니다.

새 정부는 이데올로기와 안보가 시험대에 올라있고 이는 우리나라 명운이 달려있는 중대 현안을 양손에 들고 있습니다. 조시대부터 있던 당파간 통합불능의 옛일이 과거 정부의 잘못이라고, 또 자기끼리 자리를 나눠 갖는 회전문 인사가 잘못된 정치라고 지적을 때 우리는 박수를 쳤는데 그 일이 재현된다면 비극인가 회극인가? 새 정부가 옛 정부와 다르다면 기대도 같다면 심각한 우려일 것입니다.

동안 이후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일이 있었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그때마다 국가의 운명은 연착륙하였습니다. 이는 훌륭한 국민의식과 우국 열사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공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크다고 믿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천 정부까지 한 사람도 잘한 대통령은 없다는데 우리나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아프리카 수준에서 경제, 교육, 조선... 등 여러 면에서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과거뿐 아니라 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손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려면 정의가 강 같이 진실이 넷물처럼 막힘없이 우리의 심령과 한국 강산에 흐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가 진리와 정직으로 돌아서야 하겠고 성도는 눈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고 진리의 빛이 어둠의 세상을 비취어주겠습니다.

구슴은 뒤로 하고 2018년은 교회갱신, 나라갱신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hwangtrenton@yahoo.com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영 어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담임목사 청빙 공고

시카고 한인교회는 P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소속된 시카고 인근 Hoffman Estates 시에 위치한 교회로 창립 45주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반 행하는 교회”가 되고자 힘써온 교회입니다. 지난 20년을 섬기신 3대 담임 목사님이 북한선교에 전념하기 위하여 사임(조기은퇴)함에 따라 차세대 이민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실 4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 1. 자격요건

-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목회경력(Full Time)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
- 한국어와 영어 설교가 가능하신 분
- 미국 PCA 교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가입이 가능하신 분
-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실수 있는분

### 2. 제출서류

- 본교회 양식 지원서(kcclove.org에서 download)
- 목회 계획서(시카고 한인교회 담임목사로서의 비전과 계획)
- 목사 안수 증명서 및 최종 졸업(학위) 증명서
- 추천서(2명 이상)
- 자기 소개서 (신앙고백, 목회 경험, 성장 배경, 가족소개, 소명 - letter size 2장 이내)
- 년 이내의 한국어 설교(2편) 및 영어 설교(1편, optional) 동영상

### 3. 제출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 Email: kcc.pulpit.app@gmail.com (PDF로 보냄)
- 주소: Korean Church of Chicago, 1500 W. Algonquin Rd, Hoffman Estates, IL 60192, USA Attn: 담임 목사 청빙 위원회

### 4. 제출기간

- 2018년 1월 31 일까지(당일 소인까지 유효함)

### 5.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1차에서 선정된 분은 개별 통지하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는 시카고 한인교회 청빙위원회로 메일해 주시면 됩니다.  
Email: kcc.pulpit.app@gmail.com

시카고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어느 예배에서는 규정 요소인 것이 다른 예배에서는 규정적 요소가 되지 않을 수가 있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 번제와 같은 것은 성전 예배에서는 예배의 규정요소이지만 신약교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개혁교회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현상적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찬송과 관련한 논점들도 바로 이런 맥락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랩은 '예배규정원리'는 두 가지 정황을 의식하고 발전되었다고 한다. 첫째는 로마교회의 위상 승배를 예배에서 견어내기 위한

않는 것과 관련하여 프랩은 시편 찬송만을 예배의 찬송으로 사용 하여야 된다는 전통적 주장을 한 거든 약할 뿐더러, 다른 사람의 신앙양심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고어는 청교도의 전통적 '예배 규정원리' 견해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한다는 원칙에서는 바른 방향을 잡았지만 온전한 성경적 가르침에 일치하지는 못했다고 언급한다. 그는 '예배의 연약적 원리'(the Covenantal Principle of Worship)라고 스스로 명한 자신의 견해를 '예배규정

원리'에 대한 새 관점으로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연약의 예배원리'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예배의 요소들인 기도, 성례, 설교, 시편찬양을 포함한다. 둘째 '연약적 예배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에서 언급한 '필요하며 좋은 추론'에 의하여 성경에서 도출된 신학적 판단을 포함한다. 셋째 '연약적 예배원리'는 성경에 일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배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

청교도의 전통적 견해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명령에 일치하든지 아니면 어긋나든지 둘 중의 하나일 뿐이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아디아포라(adiaphora)의 범위는 오직 예배의 정황들에 속한 것일 뿐이며, 예배의 요소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아디아포라의 문제일 수가 없다. 그러나 고어는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직접 명령하시지 않았던 것, 그러나 좋은 추론에 의하여 판단이 되는 영역의 것들을 모두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성탄절 예배나 신년 예배나 부활절 예배의 문제에

어서 그것이 예배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예배에 예배의 요소들을 다 갖추어 있느냐로 판단을 하고,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라는 절기는 하나의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배규정원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예배에 있어서도 아디아포라의 영역과 범위를 넓히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에 따라 행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과 개혁주의 신앙문서들과 심지어 칼빈의 교훈과도 더욱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예배규정원리'에 대한 재해석을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개혁주의

나의 특별집회의 형태로서만 인정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흥집회는 그것이 집회일 뿐, 공적 예배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양식의 예배들은 그것이 예배의 본래의 목적에 일치하도록 드러지는 것인지를 살펴서 각각의 경우마다 성경적인 분석과 제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나가며 예배는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그가 행하신 큰 일을 찬미하는 것이다. 개혁신학



이디오피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라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눅2:10-13).

기쁜 성탄과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동역자님들께 평안을 전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1. 아마로교회 개척과 건축: 전통종교와 무슬림이 우세한 지역인 아마로 마을에 교회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건축기간 동안에는 다른 지역의 교회들과 연합해서 여러 번의 전도 집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 했습니다. 건축하기 전에 성도 수가 20명이었는데, 집회를 통해서 지역주민 600여명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헌당예배 단기담과 많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복음의 생수를 전하는 우물시추: 아마로 지역은 크리스천들에 대한 핍박이 강해서 건축 자재를 수도에서 운송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시비와 몸싸움도 있었습니다. 자재를 운반하고, 내리고, 대화를 나누고, 불력을 올리고, 전도 집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 청년들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몇몇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가족의 핍박이 너무 강한 나머지, 집을 뛰쳐나와 교회에서 기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첫 사랑을 지키려는 청년들이 생겼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위해서 헌당예배와 함께 교회 마당 안에 우물을 시추해서 펌프를 달았습니다. 우물 사용을 위해서 교회와 지역주민이 함께 위원회를 만들었고, 물을 얻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마당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물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망고, 커피나무 모종 1000그루 분양/염소새끼 60마리 분양: 아마로 지역엔 과실 수가 없습니다. 멀리 남쪽 예레가 짜페지역에서 망고, 커피모종 1000그루를 가져와 교회 마당과 성도들의 집에 심었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나누어 주어 모종을 심게 했습니다.

또한 아마로교회와 인근 지역 교회 전도사들의 생계를 후원하고, 가난한 지역주민을 돕기 위해서 염소새끼 60마리를 분양했습니다. 앞으로 3년 후에는 황량한 이 땅에 망고와 커피나무가 무성해지고, 복음도 확산될 것을 믿습니다.

4. 장은혜 선교사와 멘토링하는 여학생들: 장은혜 선교사는 선교학 수업과 3명의 대학원생 논문을 지도합니다. 학생들의 논문제목들은 현재 당면한 에티오피아교회의 문제들, 지역의 문화적인 이슈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제목들입니다. 학생들이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멘토링과 지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기도제목: -교회 건축: 아마로 교회건축 중에 성도들이 늘어나(600명) 장의자와 강대상이 후원 필요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결신할 수 있도록.

-15번째 교회 개척 지역: 새롭게 교회를 개척할 미전도 지역을 주시도록, 전도사들에게 영육의 건강함

-기술학교, 목회자 훈련원 겸 선교센터: 계속적인 목회자 훈련/정부로부터 기증된 부지위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필요한 재정을 위해

-아디스아바바 대학생 전도 및 제자훈련: 7개 단과 대학 신입생 전도 집회 및 성경구입 및 배포, 기독교 학생 소그룹 제자훈련.

-단기선교팀 방문 사역 2018년 1월-2월, 부산 성지교회, 강완수 목사님 부부, 성령충만을 위해서

-선교사 가족: 선교사부부의 영적, 육적 건강함. 자녀 대신이의 새 직장 생활과 믿음의 성숙, 지연이의 결혼생활과 믿음 남편의 사업과 사업터 확장을 위해 기도해 감사드립니다

박종국 장은혜(대선, 지연) 선교사 드림  
cushpark@gmail.com

교회개혁 500주년을 지나며 - 예배의 과제 (하)



이운석 목사 (뉴욕 부르클린제일교회)

“공적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교훈 통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 누리며 드려져야”

것이며, 둘째는 영국 국교회에 예전적 규정을 강요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하여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개혁주의 예배론으로 '예배 규정원리'를 받으며 우리의 정황에 적용을 할 때, 지나칠 정도로 구체적으로 예배의 규정을 제한하는 전통적인 청교도 '예배규정원리'의 해석을 받는 것이 적절한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당시에 위상 승배적인 요소를 예배에서 제거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성경적이었다고 평가한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교회 상황에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위상 승배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며, 신앙의 양심을 어긋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예배규정원리'를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별히 개혁교회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나는 지성주의(intellectualism) 중심의 예배 성향을 어떤 의미에서 피해야 할 일종의 위상과 같은 것임을 지적하는 한편, 신앙의 양심을 억압받지

원리'에 대한 새 관점으로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연약의 예배원리'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예배의 요소들인 기도, 성례, 설교, 시편찬양을 포함한다. 둘째 '연약적 예배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항에서 언급한 '필요하며 좋은 추론'에 의하여 성경에서 도출된 신학적 판단을 포함한다. 셋째 '연약적 예배원리'는 성경에 일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배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

청교도의 전통적 견해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명령에 일치하든지 아니면 어긋나든지 둘 중의 하나일 뿐이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아디아포라(adiaphora)의 범위는 오직 예배의 정황들에 속한 것일 뿐이며, 예배의 요소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아디아포라의 문제일 수가 없다. 그러나 고어는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직접 명령하시지 않았던 것, 그러나 좋은 추론에 의하여 판단이 되는 영역의 것들을 모두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성탄절 예배나 신년 예배나 부활절 예배의 문제에

의 예배원리를 실천적 입장을 재조명해줄 수 있다.

4. 현대의 미국 개혁교회

미국의 정통장로교회(OPC)는 현대 양식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같은 개혁주의의 분류라고 할 수 있는 PCA의 교회들은 시편 이외의 찬양을 부르며 현대 양식의 예배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어느 편의 결론을 지지하든지 예배의 본질과 목적이 흐려져서는 안된다.

공적 예배에서 적절한 음악으로 회중들의 관심과 마음을 모으고 분위기를 고조시킨 다음, 회심을 하도록 설교를 한 이후에 결단을 위하여 앞으로 불러내는 것과 같은 부흥의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실용적 관점의 예배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조점과 목적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예배규정원리'의 전통적 관점으로 보거나 현대적 새 관점으로 보거나 인정할 수 없는 그릇된 예배라고 할 수 있겠다.

실용적인 관점의 예배는 교회의 공적 예배일 수가 없으며, 하

의 예배는 은혜 언약으로 불러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며 창조로부터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를 자신의 작정대로 실행하시는 영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나 회중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어떤 실용적인 관점에서 예배를 평가하고 접근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

교회로 모이는 공적 예배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교훈을 통하여 그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역사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며 드려져야 한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하고 행하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우리의 분명한 반응으로 함께 드러지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예배가 되기까지 우리의 예배는 성경을 교정되어지고 드려져야 할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2018년 GMS 미주 OMTG 5기 훈련생 모집

주제성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눅 4:43)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한국 최대 선교단체로 현재 98개국에 2,50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GMS에서는 북미주, 중남미 지역 선교를 위한 GMS 미주 OMTG 5기 선교사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이민 목회자나 파송단체가 없는 현장 선교사 혹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꿈꾸는 모든 분들은 이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선교훈련에서는 특별히 카이로스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1주일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북미주, 중남미 지역 선교사로 훈련받아 파송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김찬곤 GMS 이사장



박무용 미주 OMTG 이사장



이병구 GMS미주OMTG훈련원장

1. 일 정: 1월22일(월)-2월9일(금)
2. 장 소: 애나하임 GP선교센터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3. 훈련대상: 목사, 평신도, 선교사
4. 훈 련 비: 1,400달러
5. 강 사: GMS 미주 OMTG이사, 선교전문가, 현지선교사, 선교학자, 김찬곤 GMS 이사장, 박무용 미주 OMTG이사장, 조기산 본부총무, 이병구 미주 OMTG훈련원장, 박기호 교수 외 20명
6. 강의과목: Kairos 선교프로그램, 선교전략, 선교문화인류학, 선교와 인문학, 선교정책, 선교사의 삶, 건강한 선교, 선교역사, 리더십, 영성관리 등
7. GMS선교사 임명 및 파송식: 2월8일 오후5시
8. 등록마감: 1월15일
9. 장기선교사는 3주간 훈련, 단기선교사는 2주간 훈련
10. 2018년 훈련을 한 주간 받고 2019년에 2주간을 받아도 됨
11. GMS 정식선교사 허입 훈련임
12. 문의: (714)614-3666, igmc21@gmail.com

GMS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  
GLOBAL MISSION SOCIETY OF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선교센터: 경기도 화성시 불암면 월문리 11-10 TEL. 031-354-8861 WEBSITE: http://gms.kr

GMS 이사장: 김찬곤 목사  
GMS 미주 선교사 훈련원(OMTG) 이사장 박무용 목사  
GMS 미주 선교사 훈련원(OMTG) 훈련원장 이병구 선교사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47)

8.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의 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 교육 이야기 (8) (Biblical Integration and Education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오늘 이야기에서는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교회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모든 교사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통해 성경적 교육방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들의 현재 모습에 대해 반성해 보고자 합니다.

노출 등을 담보하며, 강력한 교육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사역자들과 교육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교육방법을 어떻게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성경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예수님의 교육방법을 충실히 따른다면 성경적 교육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교육방법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교육방법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먼저 우리 사역자들과 교육자들의 삶과 생활을 학생들의 모범이 될 만한 삶과 생활로 바꾸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노출되는 것이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오히려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성숙뿐 아니라, 생활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 또한 인격적인 부분 모두에서 본이 되도록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과의 일관성 담보를 위해서도 중요하게 거니와 내용을 다 이해 못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우리의 본을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배움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교육방법 원리 핵심주제: ①삶(life) ②쌍방향성(interactive-ness) 학생들과 최대한 시간 공유하고 삶에서 성숙되고 일관성 있는 모본 보여야

님의 교육방법을 따라 교육을 행하면 좋은 교육이 될 것이라 믿고 있어서 예수님의 교육방법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기도 할 테지요.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교육방법을 파악하여 이를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적용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육방법을 실행하는 일이며, 그러하기에 더욱 예수님의 교육방법에 대해 주의 깊게 접근하고 제대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에서는 개별적인 방법들에 대해 주목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교육방법의 원리에 대해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는 모든 개별적 방법들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육방법의 원리는 두 가지의 핵심 주제로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삶(life)"이고, 다른 하나는 "쌍방향성(interactive-ness)"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다음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쌍방향성"에 근간을 둔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므로, 사역자들과 교육자들은 학생들과 삶을 공유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학생들 입장에서 사역자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할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은 처치하고, 사역자들과 교육자들 자신이 먼저 학생들과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쁨으로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똑 같은 양과 질로 삶을 공유할 수는 없었지만, 그 원리를 적용하는 차원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관계가 생기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면서 그 가르침의 내용과 의미에 힘이 생기고 비로소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만 한 시간 정도 성경공부시간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외에 시간들을 투자하여 관계를 쌓는 것이 예수님의 교육방법을 오늘날에 적용하여 성경적인 교육을 행하는 일에 기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교육방법의 현대적 적용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삶에 모범이 되지 못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제자들과 수많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모범이 되었기에 그 삶이 그들에게 노출이 되는 것 그 자체로 훌륭한 교육이었던 것일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교육자들의 생활 및 삶의 모습들은 그렇지 못한

습니다. 물론 앞으로 "교육자의 자질"에 대한 논의를 할 때에도 반복적으로 제안될 것이지만, 교육자의 삶과 그 삶에서 보여지는 인성은 분명히 성경적인 통합 교육의 "방법론적" 근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교육학에서 흔히 "모델링(Modeling)"이라고 불리고 있는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경험하는 교사의 삶의 모습이 "다정함과 배려심(Gentleness)"이라면, 학생들은 에베소서 성경공부를 통해 배운 "be gentle(4:2)"이라는 크리스천의 삶의 원리를 머리로는 아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모범을 통해 구체화하고 이를 본 받아 자신들의 삶에서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학에서 말하는 모델링이라는 교육방법이며, 예수님의 교육방법적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한 교육, 그 온전한 깊이를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교육에서 다해이라고 적용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1)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여 함께 관계 맺는 시간을 확보하는 일과 또한 (2)우리의 신앙적, 생활적, 윤리적 삶에서의 성숙을 일구어 학생들에게 일관성 있는 모본이 되는 일만큼은 최선을 다해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역자들과 교육자들이 함께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교육을 일구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두 가지 각오(고전6:12-13)찬436장

고린도교회에 일어난 타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치중해 생긴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을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온전한 자리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무용함을 인정해야 합니다(13). "하나님은 이것저것 폐하시리라"고 하신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무용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몸도 귀하고 그리스도 안의 자유도 귀하나 더 소중한 것은 모든 것

이 주 앞에서 무력하고 헛됨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 주를 위한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13). 몸이 음란을 위한 때 망하나 주를 위한 몸이 될 때 참된 구원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몸의 활동의 궁극적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주를 즐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새해를 향해할 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합시다.

화 연합의 중요성(고전6:14-17)찬441장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시작해 그와의 완전한 연합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합을 세우는 것이 신자생활의 목표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신자는 부활생명으로 살아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 부활위에 서는 것이 현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연합으로 죄사함 받은 우리는 부활과의 연합함으로 부활생명을 가지고 살게

했습니다. 둘째, 동시에 주와 함께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연합한 우리로 모든 생각, 이론, 세상의 삶에 몰려오는 세상 유혹을 극복하려면 주와의 연합된 생활 곧, 주가 내안에 내가 주안에 있는 교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거룩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는 새해를 승리할 자입니다.

수 음행의 죄(고전6:18-19)찬445장

동서고금을 통한 음행의 죄는 우상숭배와 관계되며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교회에 이런 죄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한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이것을 이기려면 바울은 두 가지로 답합니다. 첫째, 자극적인 죄를 피하라고 합니다(18). 예고 없이 허를 치려는 죄이기 때문에 그 때마다 요셉처럼 피하는 것이 최상의 지혜입니다. 둘째, 몸의 성전의를 가져야 합니다

(19). 이것은 거룩의식입니다. 음행의 죄가 자극적인 것은 그 영향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불신실은 하나님 앞의 불신실로 연결됩니다. 이 사실함이란 성전의식으로 사는 것 곧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이 성전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자는 진실로 복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목 건강한 부부생활(고전7:1-5)찬453장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안의 창조원리인 건강한 가정의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가정의 기본단위인 부부간의 연합의 복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창조의 원리를 존중하라(1-3).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 연합과 행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여 여김의 복됨을 보여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

내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은 창조질서를 따름이기에 복됩니다. 둘째, 분방하지 말라(5). 이런 저런 이유로 분방함을 금한 이유는 그 틈새로 마귀가 역사할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셋째, 사탄에게 오는 유혹의 기회를 금하라(5). 절제에 약한 우리가 극복할 길은 유혹의 기회를 줄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길을 걸읍시다.

금 독신 은사를 방자한 유혹(고전7:6-9)찬471장

우리 시대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독신생활의 경향은 사탄이 만든 무서운 함정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교묘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독신은사란 무엇인가? 첫째, 복음증거를 위해 허락한 독신은사입니다(6-7). 사도가 받은 사명의 중대성 때문에 바울은 혼자 지남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섬리적으로 독신인자들은 독신의 기회를 선용할 수 있다고 가

르십시오. 외로움을 이기는 길은 더 나은 방향 곧,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적극적인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셋째, 창조의 원리를 따라 결혼함을 따르는 것이 복됩니다(9). 결혼해 한 가정을 꾸려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도구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 이유로 독신을 선호하는 이 악한 시대에 경건한 결혼생활의 복됨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토 복음화를 위한 구도(고전7:10-15)찬485장

하나님의 구속사는 복음화 위주로 이뤄집니다. 한 가정은 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음화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도구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이 인도하는 여기서 어떻게 보여질까요? 첫째, 남녀 간의 적극적인 화합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의 불신앙을 품고 기도하며 적극적인 화합을 힘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둘째, 불신자 남편과의 사랑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

고 가르칩니다(12-14).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복음 증거의 기회가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러나 불신자가 갈리 기 원하면 허락하라고 합니다(15). 그것은 개인 탐욕위주가 아니고 경건한 교회생활과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함입니다. 그 길로 나아갑시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ast.org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은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신화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8년 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Table with 4 columns: 학부, 신학과,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Table with 4 columns: 대학원, 목회학석사, 기독교교육학석사, 선교학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4 신앙고백서 1부
5 명함판 사진(2"x2") 2매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2 원서접수마감 : 2018년 1월 19일(금) 오후6시
3 입학시험 : 2018년 1월 20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4 개강부흥회 : 2018년 1월 22일(월)-1월 24일(수) 저녁 7시45분
5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셋째로 발견 학습을 강조하라

발견 학습(Discovery Learning)은 요즘 사회에서 사용되는 학습이론 가운데 그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이론이다. 이론의 핵심은 학습자들은 스스로 발견할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능한 선생의 역할이 지식을 전해주는 모습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해서 깨닫도록 가이드해 주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전하는 이론이다.

예수님은 이미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 그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들이 스스로 발견해가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셨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암기하는 방법으로 접근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스스로 창조적인 생각을 하도록 하셨다. 예수님이 설화체를 많이 사용하신 것이나 의미가 분명치 못한 말을 하실 때는 바로 제자들의 사고 능력을 개발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훈련에 있어서 교육은 지도자가 설명해주는 유형이 아닌 학생이 스스로 성경을 찾고 관찰하며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그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는 음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접근이 효율적이라 여겨진다. 이런 면에서 귀납적인 성경공부의 접근 방법은 유익이 있다고 여겨진다.

지도자들이 종종 실수하는 것은 자신이 신나게 가르쳤을 때 잘 가르쳤다고 만족하는 것이다. 좋은 가르침은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가르쳤느냐가 아니고 배우는 자가 어떻게 배웠느냐에 의해서 평가된다. 교육훈련 지도자는 이런 면에서 훈련생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자신들이 발견한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만드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넷째로 실천적 연습을 통해 가르치라

구약성경에서 “안다(knowing)”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의 히브리적 개념은 생각 즉 인지적인 면뿐만 아니라 경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 단어는 실천적인 교육 경험을 통한 배움을 암시하고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배운 바를 삶에서 경험해 보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 경험한 바를 후에 돌아와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경험하도록 하였고 그 경험의 결과들을 나누는 모습으로 교육하신 것이다.

배움이라는 것은 연습을 통해서 극대화될 수 있다. 실제로 해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말로만 수영을 배울 수는 없다. 옆에 있는 선생이 이렇게 해보라고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잘 안된다.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잘 되지 않는다. 이론은 실제로 체험되어야만 한다.

산학협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왜 이런 말을 쓰는가? 산업체와 학교가 기술 개발에 있어서 협력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학교의 이론과 산업체의 실체가 잘 맞질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론을 중심으로 배웠는데 실제 산업 현장에 가서 적용해보려

니까 잘 되지 않는 것이다. 기업체에서는 다시 교육을 해야 만하는 형편이다. 그래서 기업체가 학교에 돈을 주면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여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가르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 오늘날 신학교에서도 교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현실의 문제와 성경의 이상이 자유롭게 거론될 수 있는 경험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접근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우선은 직접 나가서 행하는 실습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교육훈련 커리큘럼 중 실천에 목표가 있는 내용들-

바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훈련생으로 하여금 정직을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을 이 미지화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사 중 속이는 모습이든지, 정직하지 못하게 세금을 내는 모습을 극화해 이 미지로 심어주고 그 현장에서 나는 여명

을 내가 다시 가르침으로 배운 지식이 분명히 나의 것이 되지 않은가?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가? 사람의 기억력, 기억의 정확성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가? 그러므로 교육훈련 지도자는 가능한 빨리 훈련받는 자들에게 교육훈련을 통해 배운 것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가르친 내용이 좀 더 그들에게 확실히 박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천적 연습을 통해서 가르치는 방법론에 포함된 중요한 의미는 교육훈련이 너무 교과서 중심이 되지 말고, 또한 훈련자들을 교실에만 붙잡고 있지 말라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배운 것을 바로 현장에서 실천해 보든지 아니면 유사한 현실을 놓고 실천하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다.

다섯째로 팀을 운용해서 가르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개인적으로보다는 팀으로 가르치시며 훈련시켰던 것을 볼 수 있다. 열 두 명의 제자들을 한꺼번에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세 명, 혹은 두 명씩 그룹을 지어 팀으로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영적인 진리는 혼자서 배우는 것보다 팀으로 배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요즘 효과적 교육 환경으로 소그룹을 말하는 데 교육훈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려면 전체 그룹과 그 안에서 3-4명의 소그룹을 이루어 필요한 그룹 활동(숙제, 지난 주 경험 나눔, 발표할 자료 준비 등)을 제공하면서 함께 그 활동을 같이 하도록 하고 후에 팀별로 했던 활동의 핵심을 서로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훈련하는데 있어서 그룹원 전체를 한 팀으로 묶어서 행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경우 많은 교육활동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개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데는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활동하고 어떤 목표를 같이 이루어가는 훈련, 서로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서로 타협하며 합일점을 돌출해 가면서 인간관계를 개발하고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훈련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시간적 제한 때문에 좀 더 많은 표현을 하기가 부적절하고 아울러 지도자가 민감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그룹원들 간의 상호사역을 끌어내지 못하고 단순히 지도자와의 상호사역으로 머물러 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전체 그룹원을 또 3-4명의 소그룹으로 재편성하면서 배우는 내용과 관계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프로젝트를 제공해주는 것도 유익하리라 여겨진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타난 은사를 연구해서 발표하도록 한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그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라는 프로젝트를 주고 그룹별로 완성해서 발표하도록 하는 팀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이 일을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한 자료를 소개하고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kimanhy@hanmail.net

왜 내게 배우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중)

김만형 목사 (Ph.D, 기독교교육학)



학습자 스스로 발견할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귀납적 접근방법이 유익 실제 체험되는 교육이 효과적... 연습을 통해 극대화, 현장에서 사용 권장

여겨진다. 교육훈련에서의 실천적 연습은 아주 중요하다. 사실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과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과는 아주 괴리가 클 수 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하늘을 나는 듯 이상적인데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의 진흙탕 속

순종, 봉사, 전도 등등 - 훈련시간 중이나 아니면 숙제를 통해서 직접 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천해 본 것은 후에 모여서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점, 어려웠던 점, 잘 안된 부분, 왜 안되었는지 등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현실과 말씀이 좀 더

게 할 수 있겠는가를 물으면서 함께 토론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정직하자는 교육보다 훨씬 현장감이 있을 것이다.

교육훈련에서 실천적 연습의 개념은 훈련자로 하여금 교실에서 배운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배운 것을 현장에서 사용해보도록 권장한다. 그러므로 훈련 중에라

개인보다 팀 교육이 효과적, 그룹을 3-4명 소그룹으로 재편성 배우는 내용과 관계해 문제 해결해가는 프로젝트 제공도 유익

에서 기고 있는 형편을 상상해 보라.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말씀을 듣지만 삶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고, 목사님은 왜 이렇게 못 사느냐고 꾸지람하지만 성도들은 목사님도 한 번 세상에 나와서 살아보시지요 하는 반응... 이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적인 진리와 현실이 잘 접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과 성경의 이상이 잘 만날 수 있

다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접근은 현실의 삶의 현장들을 케이스로 정리해서 교육 현장에 가져와 함께 보고 배우는 것이다. 가령 정직한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훈련생들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 나가면 잘 잊어버리고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삶의 현장과의 간격을 좁히고 적용을

도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한에 있어서는 가르치는 영역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유익하다. 사람은 자기가 배운 것을 사용하므로 가장 효율적인 학습을 하게 된다. 만약 교육훈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기회를 만들어 훈련 중 배운 것을 자신이 가르치는 내용과 관계해서 연관된 것을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확실히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사실 배운 것



제40대 오렌지카운티목사회 이·취임 감사예배

오렌지카운티목사회 40대 이·취임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셔서 한해동안 수고하셨던 임원진들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발돋움하는 신임 임원진들에게 오셔서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2018년 1월 14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남가주가스펠교회 전화:T.(714)799-5673 813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 문의 : 남상국 목사 T.(949)285-7242

- 2018 OC 목사회 회장단 및 임원
- 회 장 : 남상국 목사
  - 부회장 : 김근수, 김학정, 박희성, 이윤훈, 윤건상, 유의상, 최정자 목사
  - 총 무 : 최 다니엘 목사
  - 회 계 : 에스더 윤 목사
  - 감 사 : 남승우, 김광선 목사

